— 1 —

The Korea Times Toronto (Daily)

(일간) No. 538 1981년6월12일(금)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June 12. 1981

JUN 17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소련 극동함대등 위협 대비
일본 무력증강 요구
미국, 대한해협등 중요성 지적

(도쿄=연합) 미국은 호놀루루에서 열리고 있는13차 미·일 안보회의에서소련의 극동함대에 대항하기위해 일본이 3개 해협을봉쇄하는것을 포함해서 방위력을 크게 증강할 것을 12일 요구했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미국측은 북한의 무력증강 증거를 제시하고 일본은 한반도의 무력균형을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극동에서 분쟁이 발발하면 소련함대의 주요 통로인 대한해협(현해탄)은 큰 문제성을 제기하므로 일본은 쯔시마, 스야, 쯔가루등 3개 해협을 봉쇄해야한다고 미국은 주장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은 1척의 항공모함도 극동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야한다고 미국측은 강조했다.

미국은 소련의 전투기및 함정의 증가에 관한 자세한 증거를 보이고 "일본은 현재의 방위력으로는 이들과 대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은 군수물자 수송, 구조업무, 항공및 해상 재급유등을 담당, 미군의 후방지원을 맡아줄 것을 요청받았다.

일본헌법은 외국의 방위를 위해 자국내 군사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이같은 전쟁대비책이 국제적으로 토론되면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수상 친서 전달
금년중 한·일 정상회담

(도쿄연합=본사특약)일본 자민당의 신타로·아베 정책연구실장은 12일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강력한 힘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자민당 당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아베씨는 북한이 건설한 땅굴등을 지적하면서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씨는 15일 젠꼬·스즈끼 일본수상의 친서를 전대통령에 전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다.

그는 최근 일본 일부 정객들이 평양과의 관계증진을 주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과의 우호증진을 강조한 아베씨는 금년중 한·일 정상회담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베씨는 유망한 차기 수상후보자이다.

북한관리 일본 입국

(서울12일연합 = 본사특약) 일본 정부가 북한관리들의 일본입국을 허가키로 한 결정은 서울·도쿄간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현재의 두나라 관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한 정부소식통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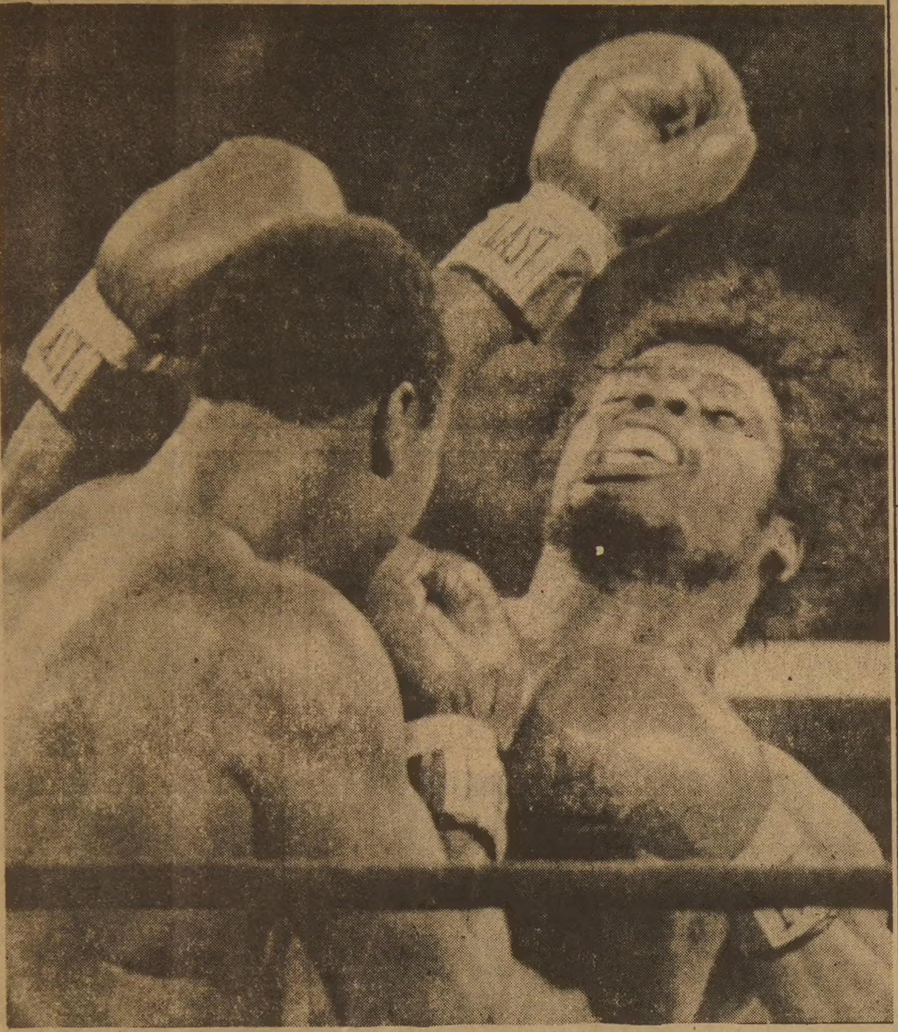
이 소식통은 현준극북한 외교·문화 연락활동 사회장이 이끄는 일단의 북한친선사절단들이 일본 국회의원의회의 초청으로 11일 도쿄에 도착한 데 대해 논평, "한일관계정상화노력이 추진되고 있고, 일본이 두 나라 정상회담을 곧 재개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이때에 북한사람들의 입국을 허가한다는 것은 두 나라의 화해분위기를 그르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지않아 북한 정치인들의 정치활동목적의 입국을 허용치 않았었다.

도쿄—북경항로
평양경유등 제안

(도쿄=연합) 일본·북한 친선을 위한 일본의원연맹의 쿠지·고노 의장은 12일 일본은 도쿄—북경항공로선 2개를 개설하고 이중 1노선은 서울을 경유, 나머지 노선은 평양을 경유토록하자고 제안했다.

평양 국제문화연락 위원회 의원장 현준극이 이끈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제기된 고노씨의 제안에 대해 현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국제문화연락위원회와 일본의원연맹이 연2회 대표단을 파견할 것을 제의했다.



◇1회전에서 챔피언 홈즈의 레프트·잽을 맞은 도전자 스핑크스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있다.

홈즈, 타이틀 방어
스핑크스를 3회 KO

(디트로이트) WBC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 래리·홈즈는 12일 도전자 레온·스핑크스를 3회 전에서 KO로 이겨, 타이틀을 방어했다.

홈즈는 첫 2라운드 에서 신체가 작은 스핑크스에게 약간의 우위를 보였다.

3회전 종료 30초를 남기고 레프트·훅에 이어 연타당한 스핑크스는 자기코너로 비틀거리며 후퇴하다가 주저 앉았다.

레프리가 9를 카운트하자 스핑크스는 일어서서 홈즈를 맞았으나 트레이너는 타월을 링으로 던져 항복을 표시하고 시합을 중단하라고 소리쳤다.

스핑크스는 15번째의 프로시합중 이번이 3번 째의 타이틀 도전이었고 홈즈는 38전 38승, 이중 28번은녹아웃을 기록했다.

처음부터 홈즈는 링을 크게 돌며 레프트·잽을 구사, 팔 길이가 3인치 짧은 스핑크스의 접근을 막았다.

홈즈는 이미 7대의 차를 가진 백만장자이다.

27세의 스핑크스는 78년 2월 알리에 판정승으로 이겨 타이틀을 차지했다가 7개월 후 다시 그에게 설욕당했다. 그는 그후 술과 여자로 타락했다.

홍콩영자지 북한 비난

(홍콩12일연합 = 본사특약) 북한이 전두환대통령의 통일 제의에 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세계무대에서 북한을 격리시키며,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이미 제3세계의 한 국가를 비롯한 일부 우방국을 잃는 결과를 낳았다고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가 주장했다.

이 신문은 1월12일과 6월5일 두번에 걸친 전대통령의 평화통일회담제의에 관해 언급하고, 이 제의가 비현실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적 협상이 성공한 예로 두 독일과 이스라엘·이집트관계를 들었다.

새 목사 정혁조씨
터버머리 백인교회 부임

토론토한인교회 정혁조 장로(47)가 5월하순 신학대학 졸업에 이어 목사로 안수됐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문리대 종교학과를 졸업했고, 74년 토론토로 이민, 지난 5월 임마누엘 신학대학 목회학부를 마치고, 캐나다연합교회 소속으로 5월26일 오웬사운드의 존·녹스연합교회에서 연회의장 벨·힛츠 목사, 연합교회총회장 로이스·윌슨 박사, 임마누엘신학대학장 해넬 박사, 이상철 목사, 유재신 목사의 공동안수로 목사가 된 정씨는 오는 7월1일부로 130여년의 역사를 가진 터버머리연합교회 담임으로 부임, 부인 배경미씨및 두 딸과 함께 토론토를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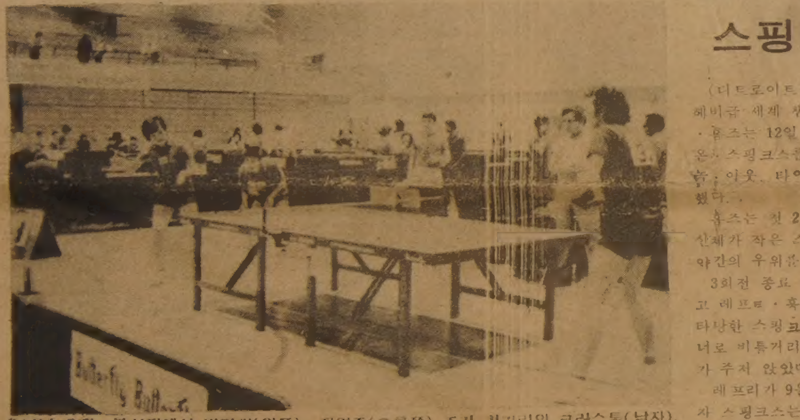
한때 「래디오한국」 프로듀서로 활약하기도 했으며, 청소년 종교지도에 힘써왔다.

정목사가 목회자의 길을 택한 동기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절실한 느낌이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그는 고교졸업후 신학방면 진출을 원했으나 당시(50년대 중반) 신학논쟁이 한국에서 한창이어서 혼란을 느껴, 어느 교단에도 소속되지 않고 종교학과에들어갔다.

캐나다에 와서 목사를 지원한 것은, 연합교단은 목사가된 후 각자의 신학노선에 간섭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중공에 3대1로 석패
한국탁구, 여자단체 준우승



◇남녀 혼합·복식전에서 박미희(왼쪽), 진영주(오른쪽) 조가 [illegible]의 크리스톤(남자), 한국의 이경미조와 맞붙고 있다. 헝가리는 출전선수가 모자라 한국팀선수와 조를 짜 나왔다.

노위치·유니온 주최 캐나다 오픈탁구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여자단체팀은 중공팀에 3대1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12일 세계 정상급인 중공의 장대잉, 통링 선수조와 맞붙은 한국A조 백양미, 황은주조는 단식에서는 졌으나 복식에서는 선전을 보여승리. 응원 나온 백여명의 교민들을 흥분케했다.

"중공팀은 작년 유고의 노비사비대회에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노련한 팀이었고, 한국A조는 쥬니어급선수들이었으므로 중공팀을 복식에서 눌렀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 이라고 배홍빈 총감독은 12일 전했다.

올덕부 여자팀 코취는"캐나다 오픈대회는 원래 쥬니어급 선수들이 많이참가하는 대회로서 작년에는 한국팀이 우승을 휩쓸다시피했었지만 올해 대회에는 중공이 국가대표급 선수를 보낸 때문에 준결승을 목표해서 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자단체전에서 한국은 예선 리그에서 탈락, 7위에 머물렀다.

13일 대회를 전부 마친뒤 한국선수단은 L.A. 호놀룰루, 일본을 거쳐 22일 귀국할 예정이다.

세계30개 은행서 6억달러 차관쥐

(도쿄=연합) 미국의 시티뱅크및 일본의 도쿄은행등 세계 주요 30개 은행들로 구성된 차관단은 한국외환은행에 6억달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한국 최대인 이번 차관은 외환은행의 외환비축금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상환기간은 8년이다.

이 차관은 한국의국내외 경제상태가 안정을 되찾은데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KANG
Canada Life
12년간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어디로 모실까요?

특별요금
모국방문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IATA
631 A BLOOR ST. W. TORONTO,
B)535-6004 R)293-9970, 5823
최 동 주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Daily Newspaper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e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섬유질 유사성 발견돼

아트란타 흑인 연쇄 살인혐의 받은 윌리암즈

지난주 애틀란타의 흑인 청소년 연쇄살인사건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다 풀려난 흑인청년 웨인·윌리엄즈(23)의 집과 차속에서 수집한 섬유질의 예비분석에서 이 섬유질이 희생자 28명가운데 적어도 12명에게서 발견된 섬유질과 거의 똑같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현지 수사당국이 10일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10일자 신문에서 FULTON COUNTY 지방검사 루이스·슬래톤씨의 말을 '인용, 현재까지 나타난 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결과는 윌리엄즈 체포를 위한 충분한 물적증거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애틀란타 경찰의 리·브라운 총경은 윌리엄즈를 공식적인 용의자로 지목하는 것을 꺼리면서 현재 수사관들이 그의 혐의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계속 증거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브라운총경은 지난주 연방수사요원들이 윌리엄즈를 심문한이래 사복형사들이 애틀란타 서북쪽에 있는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집앞거리에 경찰을 배치한 것은 윌리엄즈는 물론 그 이웃 흑인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연방수사국요원들은 지난주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윌리엄즈집에서 담요, 카피트샘플등 물적증거를 수집, 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희생자 주변에서 발견된 섬유질과 동질성여부를 감정한 바있다.

윌리엄즈는 지난주 28번째 희생자인 나타니엘·케이터(23)의 시체가 CHATTAHOOCHEE강에서 발견된 3일후 이 지점에서 강에다 어떤 물건을 내버리다 연방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그는 강에다 쓰레기를 버렸을뿐 다른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있다.

한편 수사당국의 측근 소식통은 윌리엄즈집에서 수집한 녹색 카피트조각, 담요의 보라빛 섬유질, 독일산 세퍼드에서 채취한 개털등이 적어도 희생자 12명의 시체 주변에서 수거한 섬유질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현재까지 아직도 몇차례의 화학시험을 거쳐야 법정에 물적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과학수사연구소가 지난 2년동안 희생자 주변에서 수천가지 증거물을 수집, 조사했으나 이번 경우와 같이 유사 내지는 동질성을 발견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의학전문가들과 검시관들은 현재까지 나타난 물적증거와 조사결과만으로는 법정에서 기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어선 1척 납북
인천근해서 방향잃어

(서울연합=본사특약)북한 경비정은 11일 하오1시께 인천 서쪽 40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 중이던 한국어선「경용 제1호」를 납북했다고 수산청이 12일 발표했다.

48톤짜리 어선에는 선원 21명이 타고 있었다.

수산청은 이 배가 일기불순으로 인해 방향을 잃어 북쪽으로 잘 못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산청은 어선의 즉각 반환을 북한측에 요망했다.

수산청은 어선이 군사분계선을 넘기전 나포됐다고 주장했다.

6개당 당수와 대화
대통령, 외국순방 앞두고

(서울연합=본사특약)전두환대통령은 오는 19일 6개정당 당수를 청와대로 초청, 대통령의 동남아 5개국 방문및 5일의 남북회담 재 제의등 중요 국내외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초청된 6명의 당수는 여당 민정당의 이재형, 야당 민한당의 유치송, 국민당 김종철, 민주사회당 고정훈, 민권당 김의택, 신정당 김갑수씨이다.

전두환대통령은 지난 2월20일 2명의 전직 대통령과 5명의 정당 당수를 청와대로 초청, 대통령의 방미결과등 국내외 문제에 관해 브리핑했었다.

한국 인플레 대만의 2배

(서울12일연합 = 본사특약) 한국의 지난 5년간 물가및 임금인상 폭은 대만, 일본, 홍콩, 싱가폴등 해외시장에서의 무역경쟁국에 비해 훨씬 컸으며, 이는 한국수출품의 경쟁력에 큰 위협이 되었다.

12일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75년부터 80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물가인상은 17.6%였던 반면 대만은 8.0%, 홍콩은 8.4%, 싱가폴은 9.2%, 일본은 5.7%였다.

GNP성장율 6% 예상보다 1% 넘어

(서울=연합) 한국의 금년 국민총생산고(GNP) 성장율은 6%가 넘을 것이라고 신병현 경제기획원장관이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금년 성장율을 5%로 잡았었다.

◇김원장씨

교민동정

◆박하규(목사·신학박사)=약 10년간 목회를 맡아온 마일드웨이 캐네디언 연합교회를 떠나 7월1일부로 B.C주 교회로 전근한다.

◆김원장=뱅쿠버 교포. 김원장씨(시인·캐나다 한국문협 회원)는 12일부터 뱅쿠버 소재 서부임업실험소에 출근하고 있다.

서울 고려대학 농대 출신인 김씨는 토론토대학에서 임산가공학을 전공, 10일 졸업했으며 취직처인 임업실험소에서 목질(木質) 검사, 합판·펄프등 임산가공에 대한 실험및 연구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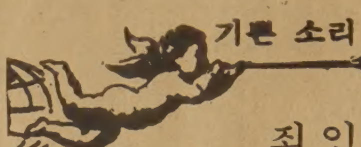
캐나다에는 동부임업실험소가 오타와에 있고, 서부실험소가 뱅쿠버에 있다.

김씨는 지난 78년1월1일 문인협회 공모 제1회 신춘문예에 시「호숫가에서」로 입상후 계속 시작품, 수필등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인 여목회자 부임

【시카고지사】미주한인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인 여목회자가 시카고에 취임한다. 그동안 시카고는 물론 LA, 뉴욕등지의 한인교회에서 미국인 여목회자가 강사로 초빙되어 설교를 한 일은 가끔있었지만 정식 교역자로 취임하기는 이번이 처음있는 일. 화제의 주인공은 아일린·런퀴스트 전도사로서 오는 7일 상오11시 시카고 중앙교회(이재영 목사)에서 정식으로 취임예배를 갖는다. 런퀴스트 전도사가 중앙교회에서 담당할 교역업무는 종교교육 전반에 관한 것으로 주로 유년부, 중·고등부등의 주일학교를 통해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된다고 한다. 중앙교회의, 이영재 목사는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아 창립당시 유년부를 다니던 아동들이 지금은 대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말하고 「한국어보다는 오히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창립2세들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인 교육목사의 취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런퀴스트 전도사의 취임경위를 밝혔다. 여자목회자로 취임하는 아일린·런퀴스트 전도사는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노스·파 신학교에서 종교교육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한편 런퀴스트 전도사의 취임예배는 오는 7일 중앙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예배와 함께 열리게 되며, 이날 예배에는 시카고지역 노회장인 크라랜스·윈스태드 목사가 초빙되어 설교를 할 예정이다.

엘 살바도르의 수도 산 살바도르에서 약 4마일 남단에 위치한 교외에 지난해부터 불어온 내란으로 또 희생당한 5명의 젊은이 시체를 어린이들이 무표정하게 쳐다보고 있다.



— 한번 돌리세요 444-4011을 —

죄인이 누군가

안 상 엽
(토론토한인선교교회 담임)

"병자"하면 병원이 생각나듯이, "죄인"하면 형무소가 생각난다. 일반적으로 죄인들은 형무소안에 갇혀있고, 그 울타리 밖에있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죄없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것이 사실일까?

나는 가끔 형무소에 갈 기회가 있다. 매우 관심을두고 있는 일이기에 기회만 있으면 사양하지 않고간다. 범법으로 인해 갇혀있는 사람들을 만나게된다.

한번은 한 젊은이하고 조그마한 간방에 서로의 무릎을 거의 맞대고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은후 기도할 기회가 있었다. 인종의 차이나, 남녀노소의 간격이없이 순수한 한 인간과 인간사이의 대화이기에 부끄러움 이나 숨김이 없는 인생의 만남인 것이다. 내 머리속에아직도 분명히 남아있는 귀절이 있다. 그 사람은"…이안에있는 사람들 같이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사람도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범죄하고도 선한체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울타리 밖에있는 사람들이지요, 나도 거기서 왔고, 여기(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왔지요…"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악독한 짓을하고 범법한 죄인들이 갇혀있는 곳이 형무소(Jail)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유치장"(Detention Camp)이나, "교도소"(Penitential Centre)같은 곳은 소위 "죄인"(Sinner)들이 갇혀있는 곳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어떤법을 지키지 못한 "범법"(Plead Guilty)된 사람이 잠싯동안 수용되어 참회하면서 보다 올바른 생을위해 준비할수있는 기회를 만드는 처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 말의 "죄인"이란 가장 위험하고 오해된 표현이다. 특별히 종교와 신앙생활에서 가장 심각하게 사용되어야 할 말이다. 세상의 법정에서 "죄"란 범법(Guilty)과 관계되며, "죄수"(Prisoner)라고 말할망정 "죄인"(Sinner)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구원" 이라는 종교술어가 오묘하고 귀중하듯, "죄인"이라는 말도 가장 심각한 위치에서 극히 드물게 사용될 표현인 것이다.

예를들어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수사를 담당한 형사가 아니라 해도 하루에 감옥과 교도소로보내야 할 젊은이와 어른을 몇사람 이라도 체포할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방지해 보려고 가게의 사방에 큼직한 돋보기 거울을 달고 주인은 두 눈동자를 쉼없이 굴리고 흘겨야 한다. 땀흘려 일하기보다 좀도둑을 방지하고, 그들과 싸우기가 더 피곤한 고역이기도 하다.

만일 화제를 잠시 바꾼다면, 10전, 혹은 20전짜리, "캔디"를 훔치다가 들키는 젊은이만 죄지은 "범인" 이고, 약속한시간을 10분, 30분, 혹은 1시간씩 어기면서도 그것이 당연하고, 마치 자랑이나 되는 듯 어리석음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가책도없는 사람은 "범인"이 아닐까? 또한 약속을 어김으로 타인을 괴롭히고, 마음을 상하고 아프게 해주는 사람은 "죄인"이 아닐까? 질문해 봐야 할것이다. 주먹으로 한대치고, 몇살을 움키쥐고, 눈을 흘기는 행위만 "범법"이고, 뒤에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욕을해서 이웃에게 오래오래 상처와손해를 주고도 아무런 가책도없이 대로를 활보하는 자는 죄인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스스로 묻고, 용서받을 마음으로 찾아가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잘못과 죄를 고백하는 "죄인"이나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지적하기 보다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반면에 교만하고, 외식하고, 스스로 선하고, 의롭고, 죄 없다고 하면서 목을 곧게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기셨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⑩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백마일을 가는동안 그 단조로움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서 눈의신경이 둔해져오기 시작했다. 쟈니는 지도를 나에게 돌려주며 그가 직선으로 그어놓은 선을따라 연필로"이제 반은왔다 정오가 조금 지나면 도착하게된다." 라고 써놓았다. 나는 눈을 창밖으로 돌려서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않는 밑으로 무엇인가를 찾아볼려고 애를써 보았다. 그때 고맙게도 지평선 상에 희미한 얼룩점이 보였다. 서서히 확실해 지면서 멀리언덕의능성이도 나타났다. 이것이 뉴엘틴과 카잔을둘러싼고원지대의 가장자리였다. 밑에깔린 흰눈은 서서히걷히기 시작했고 큰 능성이의 산이 눈을뚫고 치솟았다. 편편하던 육지가 가파르고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둔덕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다시 지도를 보았다. 이번엔 뉴엘틴위에 십자로 표시를 했지만 내가다시 밑을 내려다봐도 지도에맞춰볼만한 아무것도 보이지않았다. 몸을돌려 조종석을 바라보니 쟈니는 얼굴이굳어지고 걱정에찬 눈치였다. 잠시후에 쟈니는 이미 반은 없어진채 바늘이흔들거리고있는 연료메타를 가리켰다. 그러자 비행기가 옆으로 누우며 나르는것을느꼈다. 우리의 진로가 남쪽, 동쪽, 또는 다시 바다를향하여 바뀔때마다 콤패스의 바늘은 제멋대로 움식이고 있었다. 결국 회전을 다했지만 우리가 어디에있으며 목적지가 어디에, 어느쪽에 위치해 있는지 결정해줄아무것도 이 광활한 광야에서 찾아볼수 없었다. 우리는 마랜의 구역내로 날아들어 온것이 확실했지만도대체 우리가 어느곳에 와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구름은 여전히 낮게떠있고 동쪽으로 기수를 돌렸을때 약500피트정도로 날으고 있었다.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밑을 내려다보니 갑자기 육지가 넓게걸쳐진것이 보이는데 좌우로는미위로 설비을 이루었고 눈이 덮이지않은 산이보였다. 순간 나는 무엇인가 발견하고 "사니 집이 저밑에…" 하고 소리질렀다. 그는 기름을 절약하기위해 엔진을 갑자기 낮추고 세로사이로 무겁게 비행기를 낮췄다. 우리앞에는 비틀거리고 보불보불한 선나무가 서있었다. 아직도 얼어있는 강어구의 북대기에 한치가량늘림없는 오막살이 지붕이기센 바람속에 수줍은듯이비죽 나와있었다. 이곳이 나의 목적지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순우리는 뻔뻔하게 굳은다리로 땅위에 뛰어내리서 이 별의 악수를 나눴다. 약2백마일 이내에서는 오막집이 집이라곤 달리없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를 마중나온것은 거센 바람뿐이었다.

그 오두막집 주변에는 사람이 살고있다는 흔적이없었다. 우리가 얼음위를 힘없이 미끄러지고 자빠지며 목적지에 왔다는 기쁨을채 나누기도전에 이 오두막집이 아주 버려둔채 아무도 살고있지 않다는 사실을발견했다.

모두 10피트도 못되는빼만 앙상하게남은 몇그루의 나무 꼭대기로 요행을 바라며 눈을돌려 봤지만 눈위로겨우 보이는 나무꼭대기들밖이 우리를 난폭하게 반겨 주었다. 납덩이같은 하늘은 낮게 걸려있고 바람은 이석도 세차게불었다.

이것저것 살필여유도없이 짐을 얼음위로 꺼내놓았다. 쟈니는 마치 자기마음속으로 내가혹시 마음을바꾸지 않았는가를 물어보고 싶은것처럼 한참동안 비행기문에 서 있었다. 그가 그것에 대하여 묻지 않기가 다행이었지 지금도나는 그때 얼마나 마음을 바꾸고싶었는지 기억한다.

그는 손을흔들어 보이더니 비행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일손비행기는 울퉁불퉁한 지대를지나벙겨지듯 떠나가 버렸다. 비행기는 순식간에 구름속으로사라졌다. 귀신이 나올것같은 주변의 산에서 실풍이 불며 나의 주위에 있는 따딱한 눈을 작은 소용돌이처럼 매섭게 휘몰아쳤다. "이제 마음속에 늘 그리던 땅에 이제막 도착을 하다니…"그러나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때가 아니었다. 나는 은신처가 필요했으며, 반은 눈에잠긴오두막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은 몇 피트나되는 눈속에 파묻혀있어서 파보니까 나무토막으로 겨우엮어 놓았으며, 축축하고 음산한데 썩는냄새가 풍겨나는 동굴같았다. 오랫동안 쓰지않아서 습기찬 냄새가 지독했다. 해를 거듭해서 쌓인 휴면지와 미고미된지 울용 음식물의 찌꺼기냄새였다.

한쪽벽으로 한 스토브가 하나 있었으나 그는 아궁이에 땔만한 나무가 없으니 있으나 마나였다. 밖에는 바람이불고 안에는 지독하게 차가운 습기때문에 저항할수 없고 정말로 인기어려운 여인의 꿈처럼난로불이 간절하게 생각났다.

방안의벽이 모두 털로되어있는데 이른 겨울의 흰눈처럼 모두 하얀 북대외 북극의 여우털이었으며 통나무의 벽위에 마르도록펼쳐놓은 것으로보아 전혀방치되어 있는곳은 아닌것같았다.

(계속)

Rasan Galleries LTD.

동양의 멋이 담긴 고급가구, 앤틱, 선물용품을 구비하고 있읍니다.

교포 여러분께는 20% 할인 해드립니다. 언제나 20%

* 취급품목

- 북경장미목 가구, Cabenet, Screen, Antigue가구.
- 북경 칠보공예품(Cloisonneware) 및 상아(IVORY), Jade조각품
- 각종 북경보석품(금, 은)
- 중국, 일본 골통품및 동양화
- Hand Painted Ceramic.
- 이조가구 복제품및 한국병풍

444 YONGE ST
COLLEGE PARK SHOPS
595-0836

220 YONGE ST.
EATON CENTRE
"THE MEWS" 4LEVEL
593-4208

이 용 석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美·日、韓半島 有事時 대비
「共同指針」작성 착수

自衛隊기지 使用 便宜등
事前협의…制約완화 모색

팀스피리트 大規模化…環太平洋연습 한국海軍참가도

美日安保회의 하와이서開幕

【東京10日=聯合】 美·日양국은 10일부터 시작된 하와이 美·日안보실무협의회에서 한반도유사시에 공동대처하기위한 구체적인 지침작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美·日양국은 지난78년 안보조약 5조에의한 일본유사시 즉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때의 공동대처지침을 마련한바 있으나 동조약 6조에 의한 극동 즉 한반도유사시에 공동대처하기위한 지침마련에 착수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共同통신에의하면 일본정부 소식통은 10일하와이 회담의주의제가한반도유사시의 대처지침작성이라고 밝히고 일본측은 헌법상 극동유사시의 자위력발동이 불가능하므로 사전협의 조건완화를 포함한 주일 미군기지사용에 따른 편의제공과 자위대 기지공동사용 문제가 주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번의 한반도 문제협의는 미국측 요청에의한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반도 분쟁을 전제로한 韓美합동훈련팀스피리트가 점차 대규모화되고 내년봄 실시될 환태평양 합동연습에는 한국해군도 새로참가하리라는 이야기와관련, 韓·美·日3국안보체제 구축이 새국면에 들어선것으로 볼수 있다。

이와관련, 이 소식통은 최근 미국측이 비공식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사전협의대상이 되는 전투작전행동발진에 유의한 기지사용에관해 협력해주기 바란다」는 뜻을 일본측에 전해왔다고 밝혔다。

日·北傀민간航路 개설提議

日·朝우호聯盟방침

【東京10日AP=聯合】 日朝우호촉진의원연맹의 친북괴 일본의원들은 외교관계가 없는 일본과 북한간의 민간항로개설을 제의할 것이라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10일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구노·주지 일조의원연맹회장이 11일 방일하는 북괴의원단과 동연맹간에 12일 열리는 제1차 회담에서 기조연설을통해 이같이 제의할것이라고 말했다。

북괴 대외문화연락협회부회장 현준극을 단장으로하는 북괴의원단은 일조우호촉진의원연맹초청으로 11일부터 9일간 일본을방문, 동연맹과 두차례의 회담을가질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르(이란 대통령)起訴 시사

檢察總長 "首相에 外相權限안준건 違憲"

【테헤란10日AP=聯合】 하야툴라·모하메드·베헤슈티 이란검찰총장은 10일 아볼하산·바니·사드르 대통령이 헌법위반 혐의로 기소될것이라고 시사했다。

베헤슈티검찰총장은 이날 주례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헌법의 한조항이라도 위반한다면 그를 법정에 서게 하는것이 최고 재판소의의무이며 여기에 예외는 있을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원이 바니·사드르 대통령에대한 재판을준비하고있느냐는 직설적인 기자질문에 「어느정도」라고답변, 이를 시인했다。

베헤슈티 검찰총장은 2주일전 바니·사드르 대통령이 모하메드·알리·라자이 수상에게 잠정적으로 외무장관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국회의 의결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었다。

이란헌법은 최고 재판소가 대통령의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 최고 지도자인 아야툴라·호메이니옹에게 그 결정사실을 통보하도록 돼있다。

軍部, 사드르 排擊
政治不安 고조
데모隊 난투극

한편 이란관영 파르스통신은 10일 바니·사드르 대통령의 주요한 동조자인 알리·레자·노바리 중앙은행총재가 과격파 성직자들의 압력으로 9일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총장의 이같은 언급과 함께 이란軍도 최고혁명 최고지도자 아야툴라·호메이니옹을 지지한다고 선언, 바니·사드르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바니·사드르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란軍의 최고 사령관으로 對이라크전쟁을 지휘해왔었다。

한편 아볼하산·바니·사드르 대통령계의 신문폐간을계기로 촉발된 테헤란의 가두 시위는 2일째로 접어든 9일 경쟁세력간의 난투극으로 확산, 이란의 정치불안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바니·사드르 대통령을 지지하는 1만5천명의 군중은 이날 테헤란 시내에서 연이틀째 가두시위를벌이다가 이를 저지하는 호메이니 지지군중과 난투극을벌여 쌍방에서 수십명이 부상,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中高生 22명계속入院 7명重態

保社部조사 安養은 保健研·鐵岩은 동신製藥백신

경기도 安養과 강원도 長省에서 장티푸스 예방접종 집단부작용 사고를 낸 백신의 제조원과 사용 유효기간등이 밝혀졌다。

10일 보사부조사에 의하면 安養女商학생들에게 접종한 백신은 국립보건연구원이 80년 10월16일 제조한것으로 82년 5월13일까지가 유효기간이며 長省鐵岩중학생들에게 접종한것은 동신제약이 80년 9월4일 제조, 82년3월22일까지가 유효기간으로 돼있다。

한편 본사가 鐵岩중학교에 전화로, 安養女商에 직접 취재한 결과 이날현재 安養女商학생은 21명이 아직도 병원에 입원치료중인데 이중 7명은 고열과 손발이 뒤틀리는 마비증세에 가끔정신을잃는등 상태가 매우좋지않다。

그러나 鐵岩중학교학생들은 이날 상오까지 1명만제외하고 모두퇴원했으며 남은 1명의 학생도상태가좋아 곧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藥禍까지 입어야하나 장티푸스예방접종부작용으로 입원치료중인 安養女商학생들。59명이 입원했다 38명은 퇴원하고 21명이 계속입원중인데 이중7명은 상태가 아주 나쁘다。【安養병원=崔東完기자찍음】

韓·日議員聯 발족

韓國側 會長에 李載瀅의원 / 任員陣선출 금년活動계획 7項채택

韓日의원연맹 한국측의원단은 10일상오 서울汝矣島 全經聯회관에서 간사회의를 갖고 회장에 李載瀅民正黨대표위원, 부회장에 權正達民正黨사무총장등 6명、간사장에 金潤煥民正黨의원을 확정하는등 간부진人選을 완료하고 정식발족했다。

이날 간사회의는 7개항의 금년도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오는22일 東京에서 韓日합동간사회의를열어 오는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9차총회의 일정및 의제를 확정하는 한편 11월에는 서울에서 韓美日 自由中國대표가 참석하는제5차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간담회를갖기로했다。

10·26사태이후의 공백기를 거쳐 韓日의원연맹이 정식발족되는것을 계기로 한국은 韓日의원연맹, 韓日친선협회, 韓日의원안보협의회등으로 나뉘어져있던 친선관계채널을 韓日의원연맹으로 단일화하고 나머지단체의 활동은 의원연맹산하의 상임위로 흡수키로 했다。★해설2면

韓日의원연맹 한국의원단은 오는22일 東京에서 열리는 한일 간사회의에 참석할 한국측대표단16명의 명단을 다음과같이 발표했다。

金潤煥(단장·간사장) 尹碩淳、權翊鉉、李慈憲、林芳鉉、郭正出(이상 民正)金永秀(국민·이상 부간사장)朴敬錫、鄭男(이상 民正·상임간사)柳根椢、朴鉉兌、李寧熙、金在鎬(이상 民正)孫世一(民韓·이상 간사)

經協日代表團 고문 全대통령、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10일하오 청와대에서 제13차韓日민간합동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차 訪韓중인 同위원회 일본 대표단고문 이나야마·요시히로(稻山嘉寬) 經團聯회장, 히다까·데루(日高輝)日韓경제협회회장, 고토오·노보루(五島昇)日韓경제위원회 부위원장등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사진)

이자리에는 朴泰俊韓日경제협회회장이 배석했다。

콜롬비아議員도

全斗煥 대통령은 10일상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콜롬비아의 에밀리아노·이사사·에나오 上院 제1부의장등 上院의원일행 8명의 예방을받고 환담했다。

가뭄地域 행사중지

內務部 住民대상 敎育도 연기

내무부는 10일 가뭄지역에서는 지역주민과 일선공무원이 참가하는 일체의행사를중지하도록 전국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지시에서 가뭄이 계속되는동안에는 가뭄대책과 영농지도 이외에는 옥내외를막론하고 일체의 단체행사、단합대회、체육행사등을 갖지말도록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모든 교육도 연기하라고 시달했다。

海軍 指揮官회의

해군주요지휘관회의가 10일상오 해군본부 회의실에서 李銀秀해군참모총장주재로 열렸다。

헤이그北京行 수행 월터즈大使가 訪韓

【워싱턴10日=曺淳煥특파원】 헤이그美국무장관의 오는14∼17일 北京방문과 마닐라회의 참석에 수행하며 순회대사인 버넌·월터즈 前장군이 오는22∼23일 한국을방문, 北京회담과 마닐라회의 일에 관해 한국정부에 통보할것이라고 한 국무성관리가 10일말했다。

두脫走共犯도 自首

"누명벗으려 도망쳤다"

5명의 탈주劇…百14시간만에 끝장

송락현 법정탈주극은 1백14시간만에 끝장이 났다。 지난5일 하오4시40분서울지법 南部지원법정을 탈출했던 주범 李相勳(28·전과7범)、공범 裵殷相(28)과 馬弘植(28)의 내연의처 文仁子씨(24)와 徐來씨(26)가 9일하오 자수한데 이어 10일상오10시40분 나머지 裵와 馬가 역시 대검중앙수사부3과장 金道彦부장검사에게 자수、「5인의 탈주자」는 탈주극의 막을 스스로 닫았다。

주범李는 검찰수사에서 주동기에 대해 『지난 1월서울龍山區청파동1가해밀턴호텔단에서 경찰관에게 칼부림、손가락이 잘린 사건은 내가 한것이 아닌데도 경찰이 나를 범인으로 몰아 붙였고 검찰과 재판과정에서도 그대로 인정돼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것같아 탈옥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탈주했다』고 주장했다。

李는 경찰에서 『지난 1월24일 하오8시35분께 서울龍山區清坡洞1-23 해밀턴호텔주차장에서 잠복중인 南大門경찰서형사계 金明鎬순경(35)과 金松元순경(27)등 2명에게 대검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것은 동료소매치기 「강현수」였고 이는 사실을 경찰에서도 계속 주장했으나 결국 나를 진범으로 몰았다』고 말했다。

李는 또 『진짜범인이 사실을 숨긴채 거리를 활보할것을 생각, 어떻게든 밖에 나가 강현수를 붙잡아 검찰이나 경찰에 데리고가 사실을 밝히려했다』고 말하고 『자수전날인 8일밤 해밀턴호텔에 간것도 裵의처 文仁子씨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한것도있었지만 평소 이호텔에 자주 드나드는 강현수를 만나 따져보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한편 裵와馬는 9일하오8시께 여자들과헤어진후 택시로 서울城東區杏堂洞 어린이대공원앞까지 갔다가 강화된 검문때문에 여관숙박이 어려울것으로판단, 부근연립주택공사장지하실에서밤을새웠다。

이들은10일새벽5시께 택시로 서울清凉里 전신전화국앞으로가 해장국을 사먹으며 서로자수하기로 합의、상오10시40분께 金검사에게전화로 자수했다。

社会漫評

"이래도 안보이는거야 어떡합니까…"

地平線

「범죄 뒤에는 여자가 있다」。과연 이번 치기犯 탈주사건에도 두 내연의 처가 도피行을 함께 했다。그러나 사건에 얽힌 인간관계는 좀더 미묘하다。

한 범인의 아버지는 아들의 자수를 호소하고 나섰고、또 다른 범인은 어머니가 검찰에 연행됐다는 말을 듣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했다。사건은 탈주에서 자수까지 무척 「劇的」이다。

▼검찰에 연행됐던 그 어머니는 아들의 도주를 도왔다。형법으로하면 범인을 隱匿또는 도피하게 한者로서 3년 이하의 징역감이다。그러나 범인과 母子간이란 친족관계로 하여 처벌은 면제된다。비슷한 조문은 가족간절도인 「親族相盜」나 「權利行使를 방해 하는 罪」에도있다。친족관계、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한 것이다。▼그러면 내연의 남편을 따라다닌 두여인은 어떻게 될까。그들이도주계획을 몰랐다는 것이 사실이면、「逃走援助」(10년이하징역)와는 상관이 없고、「어머니」와 같은 「犯人隱匿」에 해당된다。그러나 두 여인은 「어머니」와 같은 「親族간의 特例」를 인정받지 못한다。그 까닭은 그들 남녀사이가 事實婚관계라는 것。쉽게 말하면 혼인신고가 안돼 있었다는 것이다。▼형법에서 「特例」가 인정되는 사람은 「친족·호주 또는 同居의 가족」이다。두 여인과 관계되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이 규정한 「그家에 入籍한者」로 한정된다。혼인신고가 없는한、그들이 몇해를 同居했건、소생이 둘이나 있건、법률해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혼인신고서 한장의 차이는 그만큼 크다。▼하지만 그 여인들이 꼭 벌을 받아야 한다면、어딘가 켕기는 뒷맛이 남을 것만 같다。특히 그들이 울먹이며 기자들을 만나、끝내 통곡을 터뜨렸다는 정경을 생각하면 그렇다。그들은 가난하게 자라나、사회밑바닥을 구르다 범인들을 만났다。그래도 범인들을 「지아비」로 여겼을 그들에게서 여자의 「업」같은 것마저 느낀다。▼이것은 값싼 동정만은 아니다。과연 그들에게 달리 행동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었을까。이른바 「期待可能性」의 문제다。뒤늦게나마 자수를 권고한 사실도 참작이 된다。또 아무리 事實婚이라도、그 실질관계는 좀더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이런 의문은 그들이 「特例」가 인정되는 「犯人隱匿」에만 해당된다는 前提를 둔 것이지만、검찰의 처리가 어떨지 두고 보고 싶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 당
은 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78
은 : 온스당
US 10.8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교포
사회의
등불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416)533·2361

파이오니어
PACKAGE
스페샬·세일 $499
레시버
테프·덱(샤프)
턴·테이블
스피커(둘) MDS $599
파이오니어 고급 카셑트외 각종류
전부구비했음.
$169~$549 있음.
4544 더프린 스트릿트(휜치×더프린)
☎ : 633-2332
하이·파이 HOUSE
김 왈 근

특별할인은
6월20일
까지입니다
SUN... ...SUN...ROOFS!
MOON'S LETS THE SUN SHINE IN!...
WINDSHIELDS
INSTALLED • ALL MAKES
INSURANCE CLAIMS
SUN ROOFS
FROM ONLY $140.00 INSTALLED
GRAND OPENING SPECIALS
VINYL ROOFS ONLY $100.00
Car Upholstery and Steam Cleaning Available.
MOON'S AUTO TRIM & GLASS LTD.
638-0656
12 LE PAGE CRT. UNIT 4 DOWNSVIEW
정 해 문
Finch & Keele

Montreal Trust
REAL ESTATE DEPARTMENT
안녕하십니까?
해밀톤에서 전과다름없이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읍니다. 바로 토론토 근교인 해밀톤에 아직도 싼 값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세요.
① 3베드룸. 2층독채벽돌집. $33,900. $5,000 다운
② 2베드룸 아파트가 6개 있는 3층벽돌집 $72,900. $10,000다운
③ 버라이어티 가게와 아파트 3개 있는 2층벽돌 건물. 비지니스 포함하여(주매상 $4,000) 139,000+스타 Try5만 다운
④ 버라이어티 가게(주매상 $6000)+ 2층건물(아파트2개) $219,000+스타
Vacant Lot For Parking
버라이어티가게(주매상 $3500) 건물포함(2) $98,000
버라이어티 가게(주매상 $4,000)
건물도 구입가능
140 CENTENNIAL PARKWAY NORTH
HAMILTON, ONT.
전 병 호
560-1882, 662-4705, 662-7609

大英百科辭典
BRITANNICA 3

NOW 30 VOLUMES!
(전30권)
교민에게 특별판매
● 교회, 학교, 단체등엔 특별할인
● 국민학교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쓸 수 있읍니다.
● 모국의 동생, 스승, 학교에 보내는 편리한 방법도 있읍니다.
문의처 : 745-5485 미세스 황

新·舊 調和가 첫課題

새 라인업 韓日의원聯 정식出帆

新人一色(한국)·옛骨格(일본)

특정인중심 幕後외교脫皮 제도적次元으로

우선 親分부터 쌓은후 本格활동

韓日간 의원외교의 本流를 이뤄온 韓日의원연맹의 日本측 의원단이 지난 3일 발족한데 이어 한국측 의원단이 10일 정식 出帆했다. 이로써 10·26사태와 5·17조치를 거치면서 격동기에 空白을 빚었던 韓日자의 議員外交는 새로운 터전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국회는 또 27개국 의회와 親善的으로 구성된 의원친선협회도 새로 구성함으로써 새시대의 의원외교를 담당할 라인업이 완전히 드러난 셈이다.

한국외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對美·對日 외교중 對日관계는 특히 日本의 야당은 물론 自民黨 일각에서도 北傀와 교류를 하고있는점에서 議員외교의 중요성이 그어느나라보다 강조되어왔던게 사실이다.

韓日의원외교가 그만큼 중요했기때문에 韓日의원연맹의 활동이나 역할이 컸고 그만큼 副作用과잡음이 있었던것 또한사실이었다.

특정 정치인몇사람을 중심으로한 막후접촉·개인대개인의 막후접촉에 의존해왔던 과거의 韓日의원외교는 이제 새시대를맞으면서 불러서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과거의 韓日의원외교가 「아니까外交」라는 말을 들을정도로 한국측이 主體性을 잃지나 않았나하는 反省도 나오는터이다.

이러한 反省에서 앞으로는 서로가 對等한입장에서 얘기를하고 얘기하는 방식이나 수준도 개운찮은 黑幕을 연상시키는 개인대개인보다 국회나 정당이라는 공식기구나 제도적 次元에서 하겠다는것이 한국측 새임원진의 구상인것 같다.

우선 한국측 의원단의 면면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意志가 엿보이고 있다.

과거 韓日의원 연맹에 관계하여 활동을했던 사람은 거의없는 新人一色이라는게 가장큰 특징의 하나이다.

회장인 李載瀅 民正黨대표위원이나 副會長인 權正達 李建鎬 陳懿鐘(이상 民正) 劉沃祐(民韓) 李鍾贊(국민) 高貞勳의원(民社)등이 모두 韓日의원외교에는 참여한일이 없다.

다만 幹事長인 金潤煥의원(民正)만이 5·17후 파도기에 실무를 맡았고 부간사장인 李捺憲의원(民正)이 10·26이후 崔永喆의원의 뒤를이어 실무책임을 잠깐 맡았을 뿐이다.

굳이 有經驗者를 찾는다면 丁來赫 국회의장과 素次植 金殷夏 부의장등 고문단을 들수 있겠지만 적극활동을 벌인편은 못된다.

11대의원의 80%이상이 初選 신인이기때문에 한국측 의원단(1백97명)도 신인들일수밖에 없지만 새사람들로 主役을 구성한것은 『무언가 달라져야한다』는 大前提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한국측은 會長자리를 두고 李대표와 權총장중에서 擇一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韓日의원외교에 관한 한 李대표도 새사람이고 日本측會長이 69세의 야스이(安井謙) 前參議院의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결국 李대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後聞이다.

실무 總責을 맡게될 幹事長인 金의원이나 상임간사인 朴鼓鍚 鄭明의원등이 모두 駐日특파원출신의 정치初年兵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日本측에서도 과거 이리저리 人脈으로 뛰었던 舊정치인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선 한국의 變化에대한 일반적 관심과 아울러 양국간 의원외교의 새라인업에 깊은관심을 보이고 있다.

야스이會長은 『우호친선의 바탕은 상호이해에 있으며 그러기위해서는 우선 知面을 넓혀야 한다』면서 『한국측진용이 모두 바뀌어서로 친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교란 상대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측의 전면개편만으로 새로운 외교가 전개될수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日本측은 골격을 옛날그대로 유지하고 있기때문이다.

日本측은 自民黨과 民社黨의원들만의 「舊體制」가 그대로유지되면서 후나다나까(船田中)會長의 별세로 그룹안가스가·잇꼬(春日一幸)民社黨상임고문이 회장代行을해오다 지난3일 총회에서 야스이씨를 새회장으로 선출했던 것이다.

후꾸다前首相이 새회장물망에 오르기도했으나 고문이라는 종래직위에 그대로 유임되었다.

日本측은 오랫동안 韓日의원외교를 주도해온 가스가·잇꼬 會長직무대행 모리 마쓰헤이(毛利松平)幹事長 나까무라·고까이(中村弘海) 가또·무쓰끼(加藤六月)副幹事長등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있다.

새로운 人選이 있다면 부회장에 사꾸라우찌(櫻內義雄) 自民黨간사장등 4명을 추가로 補完한것이다.

公明黨 社會黨 社民連등 日本야당의 참여여부도 注目되고 있으나 현단계에선 낙관할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새진용과 日本의 舊진용은 오는22일 東京에서 열리는 간사회의에서 첫대면을한뒤 9월말 서울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본격적인 相見禮를할예정이다.

元老정치에 바탕을 두고 있는 日本의회의 판도가 그대로 投影된 日本측 진용과 새시대를 표방하고나선 신인들만의 한국진용이 앞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양국간의 의원외교를 끌고갈지는 아직 未知數이다.

서로 얼굴을 익히고 본격적인 외교활동을 벌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서로왕래의 기회가 자주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여러가지 현안문제에 斷案을내리고 결정하는 정부대 정부의 정식외교채널이 아니고 분위기조성과 측면지원외교의 성격을 띠는것이 의원외교이기때문에 앞으로 양국의원들끼리 친숙해지고 개인적인 親分을 맺는일은 더욱 중요한것이다.

韓日의원연맹은 72년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가진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진용의 개편을 거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79년5월 東京의 8차총회에이어 열리는 9월의 서울 9차총회는 「제2의 創立총회」라고도 할수 있을만큼 劃期的인것이다.

양국 의원연맹은 창립이래 한국의 6·23선언에 대한 지지와 주한미군철수반대및 보완조치의 촉구등 安保外交면에서 서로 협력을하는등 많은 실적을 남겼다.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9차 총회에서도 全斗煥대통령의 1·12제의와 그 제의를 한층 발전시킨 6·5제의등에대한 日本측의 지지가 확인될것으로보인다.

한국이 정치적 격변을겪고난뒤 처음열리는 회의이기때문에 한국의 정치정세등 韓半島문제에대한 검토와 이에대한 양국간의견해가 표명될것이다. 【黃昭雄기자】

◇韓日의원연맹 한국의원단은 10일 간사회의를 갖고 任員陣을 확정, 정식발족했다.

社說

虛妄한 「等距離」추구

—日本의 對北接觸확대를 警告함

본시 友好·善隣관계의 安定性있는 유지·발전이란 제관계에 대한 基本認識을 같이하는 동시에 상호信頼가 다져지는데서만 確認할수있는법이다.

이점 日本의 韓半島政策이 가끔 야릇한 「等距離外交」의 흔들리는 모색같은것을 감축케한다는 사실은 우리로하여금 묵과할수없는 회의심을 금치 못하게한다. 최근의 부정적事例로서 지적할것은 北傀의 「對外文化연락협회」 부회장 玄峻極을 단장으로한 政治人일행의 日本入國허용문제다.

그들은 日本의회내의 親北傀團體로서 집권自民黨議員을 회장으로하는 「日朝友好촉진議員聯盟」의 초청과 法務省의 入國승인으로 東京을 방문, 약1주일에 걸쳐 쌍방의 「親善」을 위한 懸案문제」를 협의하리라고한다. 보도에 의하면 무역촉진 방책과 민간漁業協定의 연장, 西海石油開發에 대한기술협력 그리고 航空機의 상호寄港문제까지 논의하리라는 것이다.

한편 日本法務省은 北傀政治人일행이 「日本국내에서 政治활동을 하지 않는다는전제위에서 入國을허가했다」지만 그러한번명에는 재판적 납득가능성이 거의 결여되어있다. 이미 玄일행은 韓日기자중 韓半島정세에 관한 「의견교환」은 물론 주요政黨등을 「예방」할 예정인데다가, 지난 77년 5월의 「政治활동 실적」이 지금껏 世人의 기억에 생생하기 때문이다.

모처럼 韓日관계가 제5공화국 발족이후 外相會談에 이어지는 頂上會談의 추진 그리고 오는 9월의 韓日議員聯盟총회 준비등으로 「好轉」과 「正常化」를 기대케하는 바로 이무렵에 日本이 北傀에 대해서도 앙쏭달쏭한 제스처의 손을 뻗치고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이하게넘길수없다.

솔직이 말해서 日本의 그러한 처사는 外交的信義에 관한 부정적 문제제기임에 틀림이 없을 뿐더러 周邊情勢에 대한 基本認識과 責任意識마저 의심케한다. 오늘의 北傀動向에서 두드러진 측면은 그들이 韓國에의한 1·12提議와 최근의 6·5提議등 南北對話소통 노력을 모두 外面한채, 가령 9일자 黨機關紙 「로동신문」과 平壤放送의 논조에 보듯이 「새戰爭」이 어느 시각에 일어날지 예측할수없는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對韓·對美비방선전을 일삼고있다는 긴장조성에서 측정된다. 이과정에서 韓國의 孤立化를 노리는 이른바 「두다리 걸치기 外交」에 東奔西走하는 꼴이다.

이 마당에 日本의 政界일각에서 소위 「等距離外交」를 추진한다고 할때 그러한 움직임이 누구를 고무할것인가는 긴 설명을 필요없게한다. 中·蘇공히 韓國측의 相互主義 門戶開放外交에 대하여 아직 아무런 호응도 표시하지않고있는 與件도 마땅히 고려에 넣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속셈이 들여다보이며 실속도 대수로울수없는 交易的次元의 發想이 결과적으로 北傀의 戰略的次元의 企圖를 고무해주는 꼴로 되리라고보아 警鐘을 울려두지 않을수 없다. 平和愛好友邦들과의 安保的紐帶에 상응한 寄與를 다짐할 대신 侵略위협의 來源을 부채질해주는것 같은 傾向은 당연히 猛省함바라고 믿는다.

하기야 日本측은 「等距離外交」의 추진이 일부政治人의 動向일 따름이지 政府의 公式입장은 아니라고 변명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日本의 自民黨內閣이 派閥聯合政權으로서 기본상 議會에 의하여 制肘되고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책임의 회피나 분산으로는 現實的인 문제제기가 미봉될수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北으로부터의 南侵위협이 없다」든지 「不慣과의 交流확대가 韓半島의 安定에 이바지할수 있다」는 등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태의 倒錯된 現實認識에 매달리지 말아야 할것이다.

外交的信義와 友邦간의 安保的紐帶에의 寄與, 현실認識에서의 現實開眼에 걸친 當爲性에 비추어 日本政界일각의 對北傀접촉 확대 기운에 대하여 깊은 關心으로 거듭 警鐘을 울려두는 바이다.

北의 교활한 間諜工作

—방첩경각심과 그生活化 잊지말자

北傀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혼란을 조성하여 이를 武力赤化統一의 계기로 삼겠다는 野慾에서 對南강경路線을 못버리고 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9日 발표한 迂廻 간첩단 검거 事件은 이를 거듭 立證해 준다.

간첩단 事件하면 이젠 놀랍다기보다도 北傀의 蠻行가 한심스럽게만 여겨지는 느낌마저 없지 않으나 그럴수록 우리는 지금도 우리 周邊어디에선가 간첩이 跳梁하고 있으며 일부 國民이 血緣的 人情에 얽매여 간첩을방조하거나 하찮은 利益때문에 돌이킬수없는 利敵行爲를 할 蓋然性이 있다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야겠다.

이번 일망타진된 10여명 간첩단의 主犯 孫裕炯은 68년9월 北傀 指令에 따라 在日民團으로 僞裝 전향한후 현재까지 모두25회에 걸쳐 우리국내에 입국, 연고자를 中心으로 군인·국가기관종사자·위장업체관련자·밀항자등을 포섭해 활동거점을 구축해 왔다고한다. 그간 그는 1백77회나 방송파무선을 통해 北傀로부터 지령을 받았으며, 군부·학원·경제·종교계·노동계에 관한 不滿전보와 國家기밀을 수집하여 暗號·略號를 이용하여 北傀에 직접 報告한것만 전후 39回에 달한다는 것이다.

간첩 孫이 18년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이와같이 大大的인 간첩활동을 할 수 있었던것은 北傀가 우리사회의 개방적特性과 平和統一을 위한 開放政策을 교묘히 惡用하고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 平和統一을 염원하기에, 海外同胞들의 한때 잘못이나 前歷을 不問에 붙이고 그들에게 門戶를 트고 祖國訪問과 自由로운活動을 보장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北傀는 이를 南派간첩의 迂廻침투에 惡用하며 合法的國內공작土臺구축에 逆用하고 있는 것이다. 간첩 孫이 이미 72年10月, 北傀의 자금으로 平澤에 한 전자회사를 설립했었고, 올4月에는 유류절약부품을 국내보급하는 판매회사를 설립중에 있었다는 事實은 北傀의 그와같은 책략과 악랄한 對南工作 手法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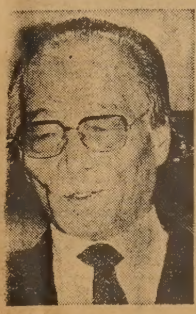
對南침투자천과 北傀工作員과의 접촉방법이나 活動무대가, 北韓으로부터의 직접침투와 日本을 通하던 비교적 단순한 방법에서 벗어나 마카오, 자카르타등 제3地域을 폭넓게 活用하고 있다는 것도 北傀의 대남工作이 더욱 교묘하게 國際的으로 活性化하고 있는 事實을 나타내 주는것이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開放性과 平和統一을 위한 對話政策에는 變化가 있을수 없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北傀의 악랄한 手法에 對處하는 方法이 무엇이어야 하는 가는 自明해진다. 즉 國民 모두가 더욱 對共경각심을 높여 自身의 周邊에 五列이 暗躍하고 있을 위험성에 항시 留念하고, 수상한者의 이상한 活動에 대해, 血緣的 人情이나 一時的 利益에 현혹되어 本意아닌 反國家的 大過를 犯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事件에서도 主犯 孫에게 포섭된者들이 대부분 그와같은연고에서 과오를 犯하게되었으며, 北傀는 앞으로도 이같이 人間의 常情을 악용하는 手法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最近 北傀는 金仲麟등 對南工作부서 責任者들의 序列을 크게 높였고 北傀黨 예산의 60% 以上을 對南적화공작에 투입하고 있다 한다. 그들의 妄動이 더욱 극렬해 질 것을 능히 예측케 하는 터이며, 이러한 강경路線은 그들이 우리의 일부 학원소요를 이른바 「결정적 시기」로 진전시키겠다는 흉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自由 사회에는 언제나 부분적인 의견의 차이나 잡음이 있을 수있다. 그러나 北傀의 武力적화야욕을 분쇄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異見이 있을 수 없다. 이에 관한 限 온國民이 人情이나 사소한 利害關係를 초월해서 渾然一體가 되어 사회의 安定을 期할 때, 北傀는 무모한 妄想과 헛된 野慾을 포기하고 비로소 對話의 廣場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韓日의원聯 한국측會長 李載瀅 의원



5分間 인터뷰

"日의 對韓인식 改善에 力點"

『韓日의원연맹에 대한 국민들의 주문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조심하지않으면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을 다할수 없다고 봅니다』 10일 정식발족된 韓日의원연맹의 李載瀅 한국측회장은 앞으로의 연맹활동에대해 新任회장으로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 과거 韓日의원연맹이 국민들에게 별로 좋은인상을 주지못한 이유와 그개선책은 —.

『과거의 韓日관계는 경제적으로나 모든면에있어서 우리가 종속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양국은 대등한 입장에서 양국의 우호증진에 노력할때가 됐다고 봅니다. 日本의 對韓인식 개선에 力점을 둬야겠지요』

— 日本측에서 한국측진용이 배타적이라고 볼 가능성은 없는지 —.

『일본측진용은 일본의 국회나 정계의 비중있고 관록있는 인물들로 구성된게 사실이지요. 우리나라는 제5공화국의 출범과함께 멤버들이 대폭개편, 비록 연령은 젊어졌지만 일본과 상응하는 인물들이라고 봅니다. 韓日관계는 韓美관계와 함께 어느우방보다도 중요한비중을 차지하고있기때문에 피차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한다면 양국의 이해증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 앞으로 양국간의 의원외교에서 개인적인 접촉을 피하도록 하겠다는데 —.

『과거엔 개인레벨에서 접촉하다보니 국가적인 차원보다 개인의 利害관계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超黨的으로 구성된 힘원을 살리기위해서 개인접촉은 전체의사에 의한 부분적인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서는 곤란하다고보는것입니다. 회원각자의 의사가 집약되어 연맹이란 기구를통해 표현되고 정화돼야만 양국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韓日의원연맹회의때 과거에는 일본어를 사용해왔다는데 —.

『이번 한국측 임원진을 볼때 일본어실력을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제회의상의 관례에 따라야겠지요. 상대방나라말을 할수있다고해도 공식회의에서는 삼가는게 원칙이 아니겠읍니까』

— 오늘 간사회의의 분위기는 친선보다는 對決의 분위기가 강한것 같았는데 —.

『日帝때 살아온 세대의 설움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흐르면 국가발전에는 有害합니다. 일본에 아직도 많은 우리동포들이 어려움속에 살고있다는 현실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피해받은 사람은 피해감정에 구애받지말고 새역사창조를위해 노력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은 지난역사를 참고 삼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말아야 쌍방의 접근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고 봅니다』

李회장은 日本측간부들과 친분관계는 전혀없다면서 한국이 日本의 安保등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시켜 그들 스스로가 한반도의 안정을위해 노력하도록 韓日관계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李在武기자】

3천여 法令 効力검토

政府 改正·폐지등 整備기초자료위해

정부는 法令정비작업의 기초자료로 삼기위해 3천여법령에대한 효력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10일상오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金永均법제처장 주재로 각부처의 법무관회의를 열고 法令効力검토작업계획을 시달, 법률과 대통령령은 법제처가 맡아서 효력여부를 검토하고 각部令은 소관부처에서 검토, 6월말까지 법제처에 보고토록 했다.

법제처가 이날시달한 법령 효력판정 기준은 ▲근거법령의 폐지와 실효된경우 ▲근거법조문이 삭제또는 실효된경우 ▲當該 법령의 규정내용과 모순되는 上位법규가 제정된경우 ▲當該 법령의 규정내용과 모순되는 同位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경우 ▲시일의 경과에의한 실효성의 상실 ▲관계사무의 終了에의한 실효성의 상실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개별법령의 効力有無가 판정되는대로 이를 토대로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에 맞춰 개정또는 폐지등 법령정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立法推進계획제도」를 定着化시키기로 했다.

법제처는 또 법령의 홍보가 실효성확보에 큰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법령홍보를 적극화하기로 결정, ▲신문과 TV를 통한 홍보 ▲법령官報의 발의 신규발행 ▲법령例解 행동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서 統一주도"

李문공 延世大特講

李光杓문공부장관은 10일하오 延世大 초청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민족정신」이라는 제목의 特講에서 『우리의 지상과제는 민족의생존과 조국의통일」이라고 전제, 『南北韓의 진정한 통일은 그사상적 통일이없고는 어려우며 統一사상의 定立은 사상의 창조적 발전이금지돼있는 北韓공산주의에서는 불가능한 만큼 통일사상의 창조적정립과 민족의 발전적 統一의주도권은 오직 자유주의의 南韓에 있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延世大 榮起元기념관에서 있은 이특강에서 『공산주의와 연장의 틈바구니에서 難局을 헤쳐나가기위해서는 민족의 운명공동체의식과 회생정신을 가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歪曲되지않은 民族史觀을 확립해야한다』고 말하고 『이같은 民族史觀을 통해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족의식에 기초를 둔 국가관을 뚜렷이 가져야하며 민족사에 계승돼오고있는 자랑스런 민족주의적 정신문화가 있음을 새겨 민족의 협동과 단결위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수 있다는자신감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人事異動

[農開公] ▲한국엽연초수출주식회사 대표이사 金相 ▲전무 趙鍾廷(10日字)

[貿易協會] ▲상무 柳楙龍 ▲비서실장 完孫(10日字)

民正、獨自후원회추진

내달初 1천명線、모금액 20억원 목표

民正黨은 7월초부터 독자적인 후원회 구성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民正黨의 고위당직자는 10일 『6월말까지 民韓、국민당등 타당의 취편을 관망한뒤 7월부터 후원회구성작업에 착수할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후원회 구성원을 고선대상을 1천5백명가량 확보、구성실이 결정되면 법정상한선인 1천명가까운 규모로 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모금액은 법정상한선인 연 20억원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전했다.

民正黨은 他黨과의 접촉을 통해 당초 구상했던 「후원회관리위원회」(공동)설치등이 어렵다는것이 최종확인되는대로 民韓·국민등 각당파의 사무총장회담등을 통해 他黨의 최종적인 의사를 타진한뒤 당외후원회구성 방침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독자적인 후원회구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尹前대통령 비서관 趙鍾昊의원 發令

정부는 尹潽善前대통령의 비서관(1급상당)에 趙鍾昊의원(民正)을 5일자로 임명、발령했다.

政局往來

◆長廣舌 질문공세로 지그재그

10일 [illegible]회관에서 열린 韓·日의원연맹 한국의원단 간사회의는 많은 의원들이 질문공세를 벌여 1시간 20분동안이나 계속.

이날회의에서 李漢東의원(民正)은 『일본이 최근 北傀의 對外文化연락회 부회장인 玄峻極 입국을 허용한 방침을 세웠는데 오는22일 東京에서 열리는 한일 간사회의에서 이문제를 따지자』고 제의했고 趙一濟의원(국민)은 『65만 在日同胞의 법적지위향상문제도 거론해야한다』고 주장.

이어 李捺憲의원(民正)이 韓·美·日·간담회에 관해 공개석상에서 논의하기가 곤란한 외교문제를 들고 나온데 대해 裵成東의원(民正)이 반대되는 발언을 펴자 李載瀅회장은 『그런문제는 집행부에게 맡겨달라』고 側動을 걸기도.

이 바람에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자 朴炳一의원(民韓)이 [illegible] 라면서 넘어가려하자 [illegible] 『답변을 늘어놓는게 아니냐』 [illegible] 이날 회의는 지그재그.

◆勞使協調로 不況터널 빠져나와

10일 소관산업체시찰에 나선 국회 商工委의원들은 金星社구미공장 종업원식당에서 근로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애로를 청취하고 金一封을 전달하며 격려.

이자리에서 李台燮위원장은 『작년도의 불황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온것은 경영진과 근로자여러분의 협조때문』이라고 치하했고 金琫泰(民正)·許京萬·徐鍾(民韓)의원등은 노사문제、작업장의 청결문제등에 관해 깊은 관심을 표명.

'전부잘된다고만말고 애로나 建議사항도 말해달라.'

가 民韓黨의 梁在搽의원은 『[illegible]』 [illegible] 【趙以鉉기자】

◆純代 立法議員 경력省略키로

국회사무처는 11代국회 개원후 첫 [illegible] 오는13일부터 배포키로 결정. [illegible]

◆愛國衷情 보답위해 노력할것

民正黨은 9일 [illegible]

◆글라이스틴離任—50여명환송

지난78년7월 부임했던 글라이스틴駐韓美대사가 2년11개월의 駐韓근무를 마치고 10일낮12시20분 노스웨스트항공편으로 離韓했다. 이날 金浦공항에는 위컴駐韓미군사령관과 美대사관직원들및 孔魯明외무부차관보 [illegible] 등 50여명이 나와 환송했는데 공항에서는 美8군의장대가 [illegible] 이채. 대사부인은 이날 상오10시30분 KAL편으로 살고있다는 臺北으로 혼자 떠났다. <사진>

한국식품점의 대명사

삼복 식품

2437 FINCH AVE. W. WESTON, ONT.

☎743-8270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교회 사무원 모집

타자에 경험있는 사무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본교회에서는 기독교 교인으로서 한글과 영문

연락처 : 한인교회 922—3863

윤여화장노 621—0323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한 인 교 회

아세아한약방

●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 보제첩약및 각종 병에 대한 처방약

● 특수 한약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678 BLOOR ST. W

☎ : 530—0522 조 지 섭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 : 439—6717 김 남 집

김용순무용연구소

동 부(SCARBOROUGH)

장소 : 한인회관대강당(20 MOBILE DR.)

시간 : 수요일 : 5시~7시30분

토요일 : 10시30분~3시까지

서 부 (MISSISSAUGA)

장소 : Burnhamthorpe Community Center Lounge "C"(1500 Gulleden Dr) (Burnhamthorpe & Dixie)

시간 : 금 : 6시~7시30, 7시30~9시까지

중 부(DOWN TOWN)

장소 : Western Y. M. C. A(15 Robina Ave. (on St. Clair)

시간 : 화 : 5시~6시30분 학생반

7시~8 : 30분 주부특별교실

문의전화 : 751—8891

中東·南亞 隣接國 核대결 우려

이스라엘、이라크原子爐폭격 衝擊파급

代替에너지 開發명목 原爆기술 全世界확산

核禁조약 百14國가입 調印철회사태 올지도

【런던9日路透=聯】 이스라엘의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 폭격은 원자탄제조기술이 제3세계로 확대될 경우 인접국간 핵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현재 이같은 우려는 中東과 南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나 핵기술은 대체에너지의 개발 필요성으로 인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68년 핵확산금지조약이 마련된이래 1백14개국이 이조약에 조인했으며 이들은 이조약에 따라 自國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게되어있다.

그러나 소위 「검은羊」이라 불리는 이스라엘·印度·파키스탄·南阿共和國등 4개국은 IAEA의 통제밖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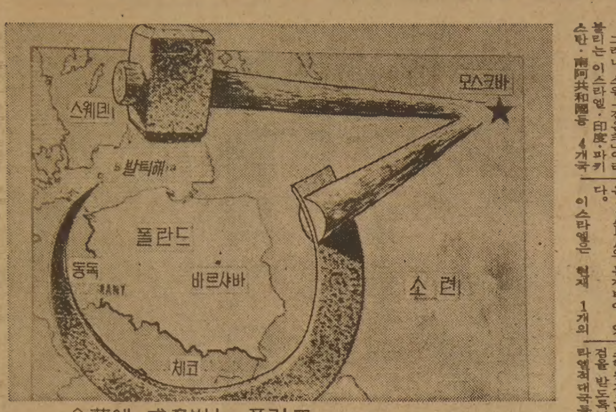
이스라엘은 현재 1개의 소형원자로만 IAEA의 점검을 받도록하고있으나 이스라엘이 비밀원자로 1基와 핵폭탄제조원료인 플루토늄 처리공장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원자폭탄을 제조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말·하산이집트국방상은 올해초 美國TV와의 회견에서 이스라엘이 히로시마(廣島)에 투하된 규모의 원자폭탄을 27개나 보유하고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라크는 핵확산금지조약에 조인했음에도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난75년체결된 프랑스의 이라크원자로건설협정을 비난해왔는데 이라크는 거대한 석유자원이 있음에도 불구,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프랑스의 제의를 거부, 핵제조기술을 얻기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있다.

印度는 지난76년 핵실험을 한바있는데 인디라·간디印度수상은 핵실험의 필요성이 있을경우 이를 계속추진할것이라면서 앞으로 파키스탄이 핵무기를제조할경우 印度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할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IAEA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라크원자로 폭격이 핵기술의 전세계확산으로 야기된 불안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말하고 이라크는 핵확산금지조약이 이조약조인을 거부하는 이스라엘같은 국가들로부터 조인국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조약조인을 철회할지도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蘇에 威脅받는 폴란드 『폴란드지도자들은 자유노조운동을 허락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이 최근 폴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낸 경고서한은 소련의 폴란드 침공가능성을 다시한번 시사하고있다。 폴란드가 소련을 상징하는 해머와 낫에 둘러싸여있다。 【뉴욕10日UPI電送=聯】

美、國家安保會議 소집

F16 對이引渡未決

【워싱턴9日AP=聯】 레이건 美대통령은 9일하오 국가안보회의(NSC)를 긴급 소집, 지난7일 이스라엘공군기들의 이라크원자로폭격에 관한 첫번째 장시간 토의를 가졌다.

한편 헨리·캐토 국방성대변인은 오는12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F16機의 對이스라엘인도를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에관한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波政治局員 신임묻기로

黨中央委에 強穩派 격론끝에 이례적決定

【바르샤바10日路透=聯】 폴란드정치국원 11명전원은 10일 브레즈네프의 경고서한을 받고 열린 폴란드공산당제11차 당중앙위에서 강·온파간의 격돌이 계속되던끝에 이례적으로 10일 당중앙위원회에 자신들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실시토록 결정했다.

安保理 주말께開催

【北京10日UPI=聯】 쿠르트·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은 10일 이스라엘의 이라크 발전시설에대한 폭격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국제법위반행위』라고 거듭 비난하고 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빠르면 이번주말께 개최될것이라고 밝혔다.

印度 大列車사고 死亡 8백명線

【뉴델리10日UPI=聯】 지난 7일 발생한 인도의 대열차사고의 발생원인과 사망자숫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다. 페리에라 해군사령관은 이 사고의 희생자가 『8백명정도에 이를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비하르주지사 크리스나·찬드라·사하는 적어도 『1천명정도는 사망했을것』이라고 말했다.

방글라 政界·軍部 대결상태

새大統領 라만未亡人·國父딸 有力

【대카10日AP=聯】 지아우르·라만 대통령의 피살과 이로인해 야기될 방글라데시의 국가적위기는 군부와 정치지도층을 신중한 대결의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대카의 외교가는 말하고 있다.

死刑부활法案 통과 美上院 法司委

【워싱턴9日AP=聯】 美上院법사위는 9일 美대통령암살기도등 수개 연방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부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法司委는 이날 거의 아무런 토의없이 이 새로운 사형제도법안을 13대5로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 의하면 대통령암살기도 이외에도 ▲반역 ▲간첩 ▲비행기납치 ▲납치 등의 범죄로 사망자가 발생할경우 범죄자에 사형을 선고할수 있게된다.

이機爆彈은 정확히 目標1m안에 떨어졌다"

佛기술자 목격담…"4臺가 불과 10秒도 안걸려"

【파리10日路透=聯】 오시라크原子爐의 건설공사에 참여한 프랑스기술자 1백50명중 한사람인 자크·립보드씨는 10일 『오시라크原子爐는 이스라엘공군기의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됐으며 原子爐를 다시 건설하는 일은 無에서 새로 출발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바그다드로부터 프랑스로 돌아온 자크·립보드씨는 오를리空港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오시라크原子爐를 폭격하는 동안 자신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카페 테라스에앉아 폭격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2대의 전투기가 방어상태를 점검하기위해 먼저 原子爐상공을 날아지나갔으며 그뒤 또다른 2대가 날아와 한꺼번에 폭탄 4개를 투하했다』고 말했다. 그는 『폭격이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았으며 폭격이 끝난후 그곳에 곧바로 달려갔을때 폭격의 정확성에 놀랐다』고 말했다.

자크·립보드씨는 『폭탄들은 모두 목표물의 1m안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인명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스라엘공군기들의 폭격시간선택은 완벽한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자신의목격한바로는 폭격에 참가한전투기는 4대라고 말했다.

자크·립보드씨는 그러나 오시라크原子爐에 떨어진 폭탄중 한개가 불발, 현장 접근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들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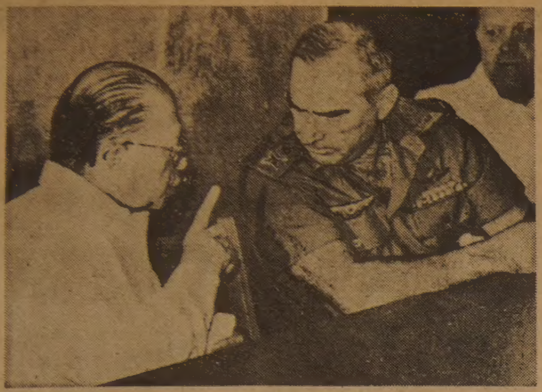
오늘 긴급外相會談 아랍聯、對이報復논의

【베이루트10日AP=聯】 이스라엘의 이라크원자로 폭격에 대한 보복방안을 논의하기위한 아랍연맹긴급외상회담이 11일 이라크수도 바그다드에서 개최된다고 이라크관영 INA통신이 9일 보도했다.

INA통신은 아랍연맹본부가있는 튀니지수도 튀니스발신보도에서 긴급외상회담 개최결정이 연맹사무국에 의해 내려졌다고 말했다.

核운반미사일 이라크、蘇등과協商 購買

【텔아비브10日AP=聯】 이라크는 최근 핵탄두를 운반하는데 쓰이는 지대지 미사일 구매를위해 소련을 비롯한 수개국과 협상을 재개했다고 이스라엘 군사소식통들이 10일 말했다.



◇베긴·참모장 意見교환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左)이 9일 최근실시된 이스라엘 공군기들의 이라크원자로 공격에대한 의회 외교및 국방위원회 브리핑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軍참모 총장 라파엘·에이탄중장과 의견을 교환하고있다。 【예루살렘 9일UPI電送=聯】

이스라엘 核開發 어디까지왔나

60년에 原電建設 처음밝혀

核확산禁止조약 가입 안해

불투명속 아랍國들은 「核보유」확신

【예루살렘9日AP=聯】 이스라엘의 정확한 核실력은 비밀의 베일에 싸여있다.

이스라엘이 핵개발을 처음 공식발언한 것은 60년 12월21일 벤구리온 당시 수상이 의회연설에서 『과학적 연구를 위한 核센터를 네게브사막 디모나부근에 건설중』이라고 밝혔다.

◇가난에 찌든 대카거리 어린 구두수선공이 노상에 나앉아 일감을 고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치타공의 불발쿠데타로 지아우르·라만 대통령이 죽기전까지 빈곤문제를 비롯한 골치아픈 과제들이 해결되는듯 했었다。 【대카10日AP=聯】

中共 신축적자세

臺灣에 精密무기 販賣안하면 美武器 구입 用意

【워싱턴10日=申洋俊특파원】

臺灣 무기販賣계획 美、中共항의로保留

【워싱턴9日AP=聯】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의 대자유중국무기판매문제가 중공의 강력한 항의에 봉착함에 따라 미·중공관계를 고려하여 자유중국측의 고성능제트전투기 구매요청을 보류중이다.

美「20세기폭스」社 賣却

데버石油財閥 데이비스 손에 넘어가

【로스앤젤레스9日路透=聯】 미국의 20세기 폭스사가 8일 덴버의 석유재벌 마빈·데이비스(55)에게 8억달러에 매각됐다.

韓國系윌라金토니賞수상

「유식한 女人들」로 의상부문에

미국연극계의 오스카상으로 통하는 토니상의 금년도 의상상수상자 윌라·金(WILLA KIM)은 한인교포2세다.

◇토니상 의상부문상을 받은 한인교포2세 윌라·金씨。『기회가 있으면 모국인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본사 뉴욕支社 黃鍾天기자 촬영·AP電送=聯】

메아리

오랜 가물로 목이 타고 있는 전국에 비가 내리기는 하였으나 해갈에는 미치지못하고 아직 모내기를 마치지 못한채 비를 기다리며 한숨만 짓고 있는 영·호남 농민들의 마음을 흔들하게 함은 비에 인색한 하늘이 야속하기만하다。

하기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거의 3·4년에 한번꼴로 한재가 들어서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왔다。

한재가 우심해서 흉년이 들면 여러 굶다는 유민과 걸인이 방방곡곡에 넘치고 버림받은 고아가 수없이 생겼으며 그리고도 주려죽는 사람이 있었다。

근자에는 한재로 인한 유민이나 기아 또는 아사자를 볼수가 어렵게는 되었다하나 가물로인해서 인심이 스산해지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다。

지금과 같은 가뭄에 즈음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자연이 하는 일을 뜻대로 다스릴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예로부터 기우제를 지내왔다。

고려시대에는 사찰에 新雨道場을 차려서 龍王經을 읽으면서 비를 빌었고 朝鮮時代에는 왕과 여러 관아및 지역사회가 산마루나 깊은 강가에 제단을마련하여 비가 내리기를 빌었다。

특히 왕의 경우는 수라상의 찬을 줄이고 몸을 정결히하여 하늘에 제사지내며 거처를 초가집으로 옮기는 한편 옥에 갇힌 죄수들을 풀어주는등 선정을 베풀면서 비를 내려주기 바랐다。

또 일반에서는 저자를 옮기고 부채와 양산을 쓰지 못하게 했으며 양반도 모자를 쓰지 않도록 하여 오늘날의 안목으로는 미신적인 행사로 비를 오게하려 했다。

비를 바라며

이런 관습을 이어서 지난 국가는 81 마지막날 행사로 기우제가 올려진바 있었고 각지방에서도 이미 비를바는 행사를 치른곳이 많았는데 하늘은 여전히 비에 인색하다。

중앙관상대의 예보는 아직도 해갈될만한 비는 내리지 않을것이고 18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리라는 것이다。

새삼 기우제를 지내던 선인들의 마음으로 비를 바라면서도 하늘만 바라볼것이 아니라 농업용수를 근심하지 않아도 될만큼 국토를 가꾸기 위한 삶질에 꾸준하기를 다시금 다짐하지 않을수없다。

학 생 모 집

닥아오는 여름방학 동안에 귀댁의 귀여운 자녀들에게 한국말과 글을 가르쳐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스카보로의 샛별한글학교에서는 여름학교의 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읍니다.

학급수 : 3 학급
장 소 : Woburn고등학교
2222 Ellesmere Rd.
(Markham Rd.×Ellesmere Rd.의 동북쪽)
개강일 : 1981년7월6일 오전9시
기 간 : 7월6일부터 8월7일(매일)
시 간 : 오전9시30분~12시30분
수업료 : 한학생당 매주8달러
문의처 : 267—2292 미스타 문
293—3149 미세스 리

샛별한글학교

제2회
숙명동창모임공고

다음과 같이 동창 여러분의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는장소 :
1473 Adamson Street
Mississauga, Ont.
이경신회장댁(Mrs. 양태동)

시 일 :
6월20일(토) 오후1시

연락처 :
이경신 회장 276—3255(미세스 양태동)
변옥룡 부회장 298—2546(미세스 곽석영)
안현숙(미세스 강형수) 431—9200

숙명여고 동창회

중앙동창회

야유회및 야구시합

일 시 : 1981년6월27일(토) 오전9시
장 소 : Centennial Park(Eglinton W.)
연 락 처 : 박홍일 651—8511
참 조 : 불갈비 정식및 음료수는 동창회에서 준비함.

중앙, 중앙 이기자!

동 창 회 장
김 대 일

공 고

근방 한인회 주최 야구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게 되었읍니다. 공사다망하신중에도 많은 참여와 성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7월4일 오전9시
장 소 : 코로네이션 피크
경기운영 : 카나디언 아마츄어 소프트볼 적용
참 가 비 : 팀당 50달러
참가신청마감 :
1981년6월20일 오후7시 한인회관
참가신청 : 한인회 755—9288

주최 : 토론토한인회,
대한체육회,
야구협회,
토론토총영사관
한국일보사
코리언저널

衝擊준 脫走劇 自首로 끝났으나…

幕내린 소매치기 集團脫走劇

<취재기자放談>

〈放談 참석자〉 裵襲哲 任龍澤 方政俊 崔鑫植 朴珍利 金宋來 姜乘泰 鄭在龍기자 기록=鄭 崇 鎬기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습소매치기들의 집단탈주극은 관련자5명 모두 자수함으로써 엿새만에 막을 내렸어. 매일밤을 새우다시피해 얼굴들이 꺼칠한데 그동안에 보도되지 못했던 얘기를 차례대로 해보지.

—李가 자수하던 9일하오5시께부터 이야기를 풀어보지.

—그때 법조기자를 포함한 일선 경찰취재진은 李의 자수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모두 서울지검南部지청의 어느부장실에 모여들었었지. 지방판 마감도 거의 끝났고 이제는 밤에 있을 수사진전상황에 대비하면서 탈주범들이 잠복할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나름대로 추리하고 있었어.

이때 부장검사 입회서기가 들어와 『한명이 대검에 자수했다는데요』라고 보고를해 모두 후닥닥 일어나 뛰기 시작했어. 법조기자들은 비워둔 대검찰청으로 달려갔지.

주범李가 대검에 자수해온 시각은 공교롭게도 李時元법무장관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법정탈주사건」의 상황보고를 하던 때였어. 李의 자수직후 대검간부들은 부랴부랴 청와대에 李의 자수사실을 연락했고 李장관은 메모쪽지를 전해받고 全斗煥대통령에게 李의 자수를 보고 했다는거야. 탈주를 보고하러갔다가 자수를 보고하게 된셈이지.

—주범李가 자수전화를 한곳은 검찰발표대로 검찰청앞 공중전화가 아니고 바로 대검찰청 수위실이었어.

—그런데도 본지를 제외한 5개신문들은 이점모르고 검찰발표를 그냥 믿고 써버린거야.

대검이 굳이 『검찰청밖』으로 발표한것은 전국에 지명수배중인 흉악범이 버젓이 이번사건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대검의 바로 코밑까지 걸어들어왔다는것을 밝히고싶지않아서 였겠지.

—어쨌든 이대목에서 확인않은 신문과 끝까지 확인하는 신문이 판가름난게 아니겠어.

檢·警察미묘한관계 드러내

密告했던 장물아비 報復 겁내 신변보호 요청

칼 出處 특종에 "검찰간부 수첩찢었다"누명도

—바로 그무렵 경찰이 徐와馬를 잡기위해 불광극장을 포위하고 있다는 말에 취재차로 달려 극장앞에 이르렀으나 범인들은없고 라디오에서 스파트뉴스를 듣고 나온 시민들로 수라장이 돼있더군.

—불광극장에서 별다른 진전이없어 다시 南部지청으로 돌아가니 4일밤을 꼬박샌 검사와 수사관들이 허탈한 표정으로 하나씩 자리를 뜨고있더군. 한명이 자수한마당에 지금까지의 수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표정이야.

그러다가 李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자 지청검사들은 심문을하려 구치소로뛰쫓아갔지.

—그동안 대검에서 李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했지만 관계자들이 입을봉해 알수가 없었어. 자수한 李를 구치소로 옮기는순간 몇마디 물어보려 했지만 보도진의 아우성소리에 李의 말을 들을수가없더군.

—지청에 남은 우리도 대검의 발표를 듣기위해 라디오를 켜놓고 기다리다 잠깐 앞주멍가게에 갔어.

—이날 밤11시20분께가 됐을까. 文仁子, 徐와 來등 두 여인이 자수를 하러 南部지청에 제발로 걸어 들어온거야. 밖에서 보니 꺼져있던 검사들 방에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소란스러워지더군. 『일이 터졌다』는 생각에 지청수사과로 달려가니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가 버렸더군.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도 안 열어줘 마당으로 나가 발돋움을해 창틈으로 보니 여자들이 수사과 한쪽에 앉아있질 않아. 빨리 발표를 하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헛수고였어.

—그와중에 나는 지청직원의 담배불에 잠바소매에 구멍이 뚫리기도 했지.

—잠시후 검찰간부가 馬와 徐의 자수를 권유하기위해 인터뷰시간을 주겠다고 말해 그의 방에서 두여인을기자들이 만나게됐어. 처음에는 기자가 5명뿐이었는데 순식간에 수십명이모여들어 치열한 취재전쟁이 벌어진거야.

—첫눈에 초췌해 보이더군. 자수하기전에 울고왔는지 徐와來여인은 눈이 부어있었고 文仁子여인은 비교적 침착하더군.

—둘이 사전에 말을 맞춘듯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로 徐여인이했는데 남편의 행적을 물으면 울음을 터뜨리고 장남의 이름을 물으면 『아기이름은쓰지말아달라』는 부탁까지 하는 여유까지 보였으니까. 여자로서 본능적인 모성애가 물씬 느껴지기도 하고.

—약20분간 일문일답을 하는데 갑자기 검찰직원들이 『이제 그만』하는 바람에 인터뷰가 중단돼 검찰과 기자들간에 한때 말다툼이 생기기도했어.

—그와중에 徐의 배가 불룩한 것을 보고 임신했느냐고 물었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6개월째』라고 하더군.그래서 이사실을 우리만이 잡은 뉴스가 됐지.

—신문사에 송고를 마치고 馬와 徐도 자수했을것으로 보고 徐여인이 이들의 탈주동기가 『두명을 찍기 때문』이라며 『장물아비 李모씨와 소매치기 金모에게 복수를 한후 자수를 하려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2의 범행을 염려했었지.

—李등 3명은 장물아비 李씨가 金이 富平경찰서에 붙잡히자 경찰에『더 큰것을 잡도록 해줄테니 金을 빼주라』고 요구하고 이들을 밀고했다는 것이지. 李씨의 밀고로 붙잡힌 이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李씨가 넘겨씌운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했다더군.

—나중에 경찰에 물어보니 李씨는 이들이 탈주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와 『시시각각 생명에 위협이 다가오는것 같다』며 보호해 줄 것을 호소했다더군.

—경찰의 검문검색이나 숙박업소의 임검이 소홀했다는것은 조기체포의 기회를 놓친 결정적인 실수라고 봐야 할거야. 경찰은 입이 열개가돼도 할말이 없게됐지.

—자수한후 행적이 드러나자 거쳐간 지역의 경찰간부는 모두 울상이됐는데 이들이 투숙했던 忠信여관, 레인보우산장, 해밀턴호텔등지에는 경찰관을 배치하거나 직접임검을 했다고주장하고있는데 1、2층만 임검을 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지. 특히 이들은8일밤 牛耳洞 아람장여관에 들었는데 『임검이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나와 택시로 백병원대합실로 숨어들어갔다는구먼. 거기서 아스턴호텔로 달아났는데 여기서 그전부터아는 소매치기부하를 만나자 다시 해밀턴호텔로 옮겨잤다는거야.

—그뿐이 아니야. 이들 5명모두가 마지막으로 모여있었던 불광극장은 바로 옆에 大棗파출소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경찰관이 쫙 깔렸는데도 이들을 못봤다는 거야.

—하여튼 이들이 거쳐간 지역 경찰간부는 어떤 조치가 내릴지 안절부절 못하고있다는 후문이야. 자업자득이라고나할까.

—수사체계의 문제점은없었는지…

—이미 지적됐지만 검찰과 경찰의 협조체제가 확립안돼있었고검찰도 본청과 지청사이에 협조가잘안되는것 같았어.

—검찰은 이들의 도주경로와 가족들이 사전에 모의했을 것으로 보고이 방면에 수사를 치중하는 한편 경찰에게는 얻은 정보를 나누어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더군. 따라서 경찰은 자신들의 정보망을 움직여 은신처를 찾으려했지만 실패했던거야.

왜냐면 지난해 11월이후 경찰과 소매치기간의 정보채널이 거의 두절됐다더군. 경찰의 부조리로 소매치기의 계보를 파악하고있던 형사들이 타부서나 파출소로 전출됐고, 정보원들도 보복이 두려워 정보제공을 거부했다니까.

—수사가 착수되자 경찰의 반응은 상당히 미묘했어. 이들이 달아났는 사실이 전해지자 경찰은 『어떻게 잡아준놈들인데 놓쳤느냐』며 심지어는 『잘들 해보라는 식』으로 상위기관인 검찰을 책망하더군.

—검찰과 경찰간의 이같은 미묘한 관계는 검찰이 차출한 형사들에게 수사보고는 검찰에 직접하라는 지시한 것을 경찰간부들이 전해듣고부터 더 심각해졌지. 경찰간부들은 이 사건에 『지휘상관인 계장이나 과장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듯 반응을 보였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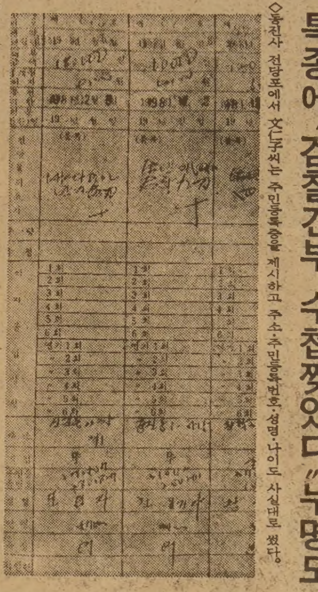
—경찰은 또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발포를 할 경우도생길법한데 이에 대한 보장을 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하기도했지.

—이번수사는 한마디로 검찰수사지휘체계의 난맥상을 드러낸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검사들 스스로의 지적도 있어. 사건발생직후 南部지청의 강력담당 李鍾明부장검사가 수사본부장을 맡았던것을 갑자기 대검 李憲根 형사제2부장으로 수사본부장을 격상시키는 바람에 지휘체계상 서울지검이 중간에 끼어들어 제각기 따로 돌아가기 시작한거야.

—이런 사정속에서도 속보경쟁에서는 우리가 앞선 부분이 많았지. 특히 범인들의 칼의 출처라든가 文仁子와 徐와來여인의 잠적사실은 우리의 특종이었지.

—그 기사때문에 우리는 칼의 출처에 적혀있는 검찰간부의 수첩을 찢어갔다는 누명을 쓰기도했어.(웃음)

—이번사건이 자수로 해결되는 과정에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은 자화자찬 같지만 매스컴의 덕이라고 할수있어. 李相勳도 쫓기면서 연일 신문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대서특필돼 매우 불안했었다고 말한것이 그반증이야.



◇동진사 전당포에서 文仁子씨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나이도 사실대로 썼다.

"新聞대서특필에 不安"

李相勳、山莊서 수필가와 文學얘기

自首전화 한곳은 大檢수위실(本紙보도 正確)

—범인들의 주변을 이야기해보지.

—자수한 李를보았을때 생각과는달리 범죄형이 아니라 지성미가 느껴지는 미남형이었어. 명문인 Y고교를졸업하고 M대 2학년까지 다녔다더군.

머리가 비상하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나돌았지만 그머리를 딴데 썼더라면 하는 측은한 생각도 들어.

—주범李가 자수한 직후 그동안의 행적이 밝혀지자 탈주범 일당이 이틀씩이나 묵었던 牛耳洞 레인보우산장에는 9일자정이넘어 수사진과 취재진이 몰려드는바람에 엉망이 돼버렸어.

—특히 탈주범일당이 묵었던 방을 찍기위해 들이닥치자 숙박한투숙객은 40대 남자와 20대여자였는데 얼핏보기에도 불륜관계라는게 쉽게 드러나 당사자들이 몸둘바를몰라 쩔쩔매기도했지.

—한때 레인보우 산장에서 李는 鑫와 來가 쌍쌍이 방구석에 틀어박혀있는동안 홀로 산책을 즐겼다는건데 그 이해할수 있을것 같애.

—어디 그뿐이야. 레인보우 산장의 회장인 수필가 金모씨와 정원에서 만나 문학에 관한 차원높은 담소를 나눴고 『수필문학』誌를 金씨로부터 선물받고는 코피까지 대접했다는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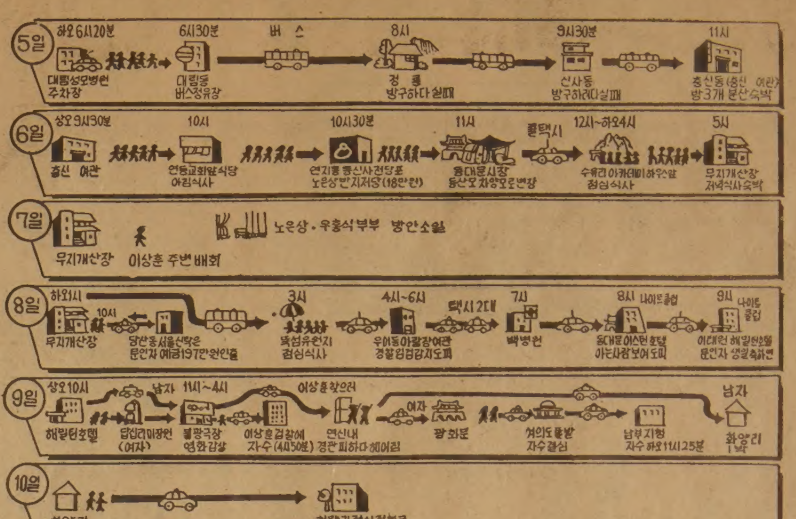
—그러니 金씨가 李를 의심못한것도 무리가 아니군.

—文仁子여인의 경우 고향인 경북 金陵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상경, 永登浦역전에서 껌팔이를 하다 호스티스로 전락, 소매치기와 어울리게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편의 호스티스 영화를 보는것 같았어.

—또 文여인의 방에서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불교명언을 보았을때는 묘한 감정이 일어나더군.

—두여인은 또 자수후 『애인들과는 절대 헤어지지않겠다』며 흐느끼던 것을 보며 사랑이란 어쨌든 대단한 것으로 느껴져.

◇犯人들의 도주코스



犯人들 逃走路 밝혀지자

通過지역 경찰간부 울상

◇文씨와 徐씨가 찾아가 文씨명의의 적금1백92만원을 찾아간 서울신탁은행 堂山洞지점.

◇탈주 다음날인 6일상오10시 徐와來씨와 文仁子씨가 찾아가 文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3푼짜리 다이어 반지를 맡기고 18만원을 빌어간 동진사 전당포.

都市에선 컬러TV 농촌지역은 냉장고

家電제품 구매력 選好度조사

가전제품가운데 구매력이 가장 높은것은 컬러TV·냉장고·세탁기의 순이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에서는 컬러TV, 농촌및 중소도시에서는 냉장고에 대한 구매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三星電子가 韓國과학기술연구소(KIST)에 의뢰, 전국의 1천2백5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 구매성향동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24.6%가 컬러TV를 구매하길 원하고 있어 컬러TV 구매선호도가 모든 가전제품중 가장높고 냉장고는 22.5%, 세탁기는 20%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高架道서 3명숨져

10일밤 11시30분께 서울永登浦區文來洞84 고가도로위에서 목포화물소속 전남7아3650호 8톤트럭(운전사 金吉福·24)이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던 한진택시소속 서울4바6450호 포니택시를 피하려다 이 택시와 뒤따라 오던 삼도상운 소속 서울1사1176호 브리사 택시(운전사 蔡亭求·49)와 충돌, 한진 한시택시운전사 李法成씨(31·서울九老區九老洞55의76)와 신원미상의 승객등 3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브리사택시운전사 蔡씨와 택시승객 金光哲씨(40·서울鍾路區홍지동102의4)등이 중상을 입고 永登浦신한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이날 사고는 永登浦에서 九老洞쪽으로 달리던 포니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는바람에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이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급히 꺾는바람에 포니택시를 받고 다시 뒤따라 오던 브리사와 연쇄충돌하면서 일어났다.

모눈종이 위에서

趙善作 作
禹慶熙 畵

그림자놀이 ㉘

그런데 그때 옆방의 불전 하나가 내 눈에 번쩍 띈것이다. 그것은 창문의 절반 높이까지 커튼을 가리고 세워져 있는 병풍이었다. 텔리비전의 여사극 따위에서 흔히는 사람이 으레 벽장 속이나 병풍 뒤에 숨곤 하던 장면이 얼핏 떠올랐고 나는 저거다 하는 느낌으로 재빨리 병풍 뒤로 갔다. 병풍 뒤의 통로는 매우 좁았기 때문에 내몸이 비집고 들어가기에 충분하지가 못했다. 병풍앞에 병풍에 기대듯이 놓여 있던 불전은 무늬가 없는 교자상이었다. 몸을 끼운채 나는 병풍과 함께 교자상을 조금씩 밀었다. 마침내 나는 매우 불편하게나마 내 몸을 병풍뒤에 완전히 숨길 수 있었다. 매캐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르고 거미줄 따위가 얼굴에 달라붙은 느낌이었지만 나는 그것들을 떨쳐 버리기 위해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숨을 쉬는대로 병풍의 상단(上端)이 움직이는 느낌이어서 나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으며, 가사(假死)의 흉내를 내고 있는 벌레처럼 나는 꼼짝도 않고 있었다.

어느 틈에 욕실에서 나왔는지 그의 발자국 소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수건으로 머리칼의 물기를 떠는소리, 불규칙한 호흡소리가 이어지더니 한동안 잠잠해졌다.

뭔가 그가 소리를 내고 있을 때보다 잠잠해져 있을 때가 나는 더 견디기 어려웠다. 그가 잠잠해져 있을때면 나는 내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듯싶어 호흡을 억제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게 죽은듯이 가만히 있자 잠시 뒤에 그가 다시 부스럭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가 「여보세요」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 소리에 너무도 놀라 기절할 지경이었다. 병풍 뒤를 눈치챈 그가 나를부르는 소리라고 얼핏 나는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관의 사무실과 통화를 시작한 모양이었다.

『여기 맥주 두병 시킨 거 어떻게 됐어요?』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한다음 잠시 간격을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그래요? 어떤 여자던데…』

그는 또 사무실 쪽의 말을 듣는지 잠자코 있었다.

나는 아연 긴장해서 사태의 귀추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사무실 쪽에서는 이여관에 그런 부탁을 받을만한 여자종업원이 없다고 말할는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그의의문은 더욱 커질 것이며 마침내는 병풍 뒤를 살피려들는지 모른다. 나는 너무 긴장해서 온몸이 마치 발열체(發熱體)처럼 뜨거워지는 느낌이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아뭏든 맥주 좀하고…그래요? 그럼 좀…』

그가 송수화기를 놓는지 달카닥하는 소리가 났고, 잠시 뒤에는 누군가 먼곳으로부터 다가오는 소리가 났다. 발자국 소리가 방문 앞에다가오더니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여자의 목소리가 말했다.

『들어가두 돼유?』

그러나 허락을 받을 것도 없이 그녀는 도어를 밀고 방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사십대의 아줌마처럼 여겨졌다. 갈라지고 처진 음색(音色)이었던 것이다.

『아주머니가 아까 여기에 안 왔었단 말이지요?』

『아니유?』

『그래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군. 그만둡시다. 암튼 맥주 두 병하고 오징어포나 뭐 아무 거라도 좀 사다 주쇼』

한국식품점의 대명사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WESTON, ONT.
☎743-8270

씨알학교 여름 프로그램 안내

여름학교 —

기　　간 : 6월29일부터 8월14일까지 매일, 7주간
장　　소 : John Wanless Public School 250 Brookdale Ave.(아베뉴로드와 로렌스 북쪽)
시　　간 : 아침9시부터 오후3시까지(아침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돌봐주는 것 가능함. 1주10불추가)
모집인원 : 유치반부터 8학년까지 100여명
프로그램 : 오전2시간 : 예능과 영어, 수학 보충공부(바이올린, 피아노, 고전무용, 미술, 태권도, 영어, 수학 중 2과목을 자유선택하여 매일 공부함)
오후2시간 : 한국어, 한국역사지지리등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 그외 수영과 각종운동, 견학등으로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니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요.
수 업 료 : 한학생 140불, 두학생 270불, 휴가를 가실 경우 Deduct를 해 드리며 등록금은 두번으로 나누어서 Postdate로 된 수표를 주셔도 됩니다.
학교버스 : 동쪽, 서쪽, 다운타운 3방향에서 각자 집앞에서 픽업하는 버스를 운영합니다. 6월22일까지 441－2986, 여정자 선생님께 미리 신청해 주십시요.
버스비용 : 한학생 140불, 두학생 270불

씨알캠프 —

기　　간 : 8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 3박4일
장　　소 : Woodland Trail's Boy Scout캠프장 (Hickory Hill Lodge)
모집인원 : 8학년까지 40명정원(등록선착순)
모집장소 : John Wanless Public School, 250 Brookdale Ave. 에서 8월18일 아침9시출발
비　　용 : 한학생 40불, 두학생 70불

씨알합창단 모집 —

목　　적 : 합창 운동을 통하여 정서교육을 높이고 한국인 2세로서의 긍지를 넣어주며,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정신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이 단체는 내년 여름방학에 한국을 방문하기 위한 모체가 될 것입니다.
자　　격 : 현4학년부터 8학년까지 음악에 소질이 있는 남여 학생
모집인원 : 30명
연습기간 : 6월29일부터 8월14일까지 오후1시에서 3시까지)
연습장소 : John Wanless Public School
지도해주실분 : 유 회 자 선생
수 업 료 : 무료, 교재비(악보대) 약간

등록 첫날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마련하였으니 해당하는 곳에 체크를 하셔서 꼭 보내주십시요.

씨알학교 여름프로그램 신청서

□ 여름학교 □ 캠 프 □합창단

영어이름 : 　　　　나이 :
한글이름 : 　　　　학년 :
현학교이름 :
아버지이름 : 　　　　전화 : 　　(B)
어머니이름 : 　　　　(R)
주　　소 :
Postal Code

□ 씨알여름학교에 등록하고저 등록비$ 를 동봉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형제일 경우 따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보호자 싸인 :

□ 씨알여름캠프에 참가하기를 원하여 $ 를 동봉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호자 싸인 :

□ 씨알합창단에 가입하고저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호자 싸인 :

보 낼 곳 : The See-All Korean School
150 Madison Ave. Tor. Ont. M5R 2S5

한국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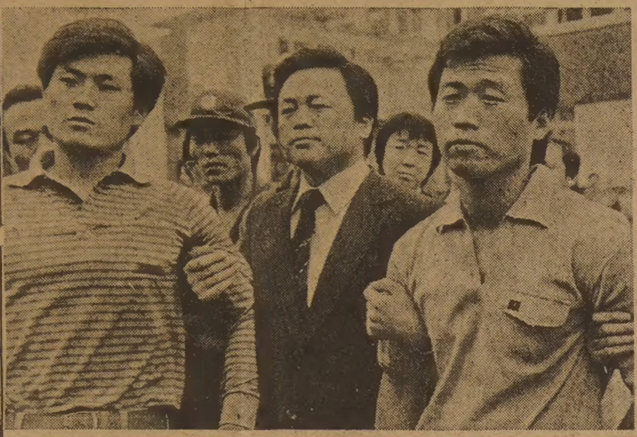
영업시간 : 낮12시~밤12시
653A BLOOR ST. W.
☎ : 533-0168

檢擧기회 다섯번이나 있었다

——脫走犯들 자진出頭할때까지 搜査속수무책

①典當鋪 반지저당 ②山莊걸치레 臨檢 ③예금引出 ④刑事잠복한 호텔出入 ⑤武裝경관부근서 食事

「滿員 서울」 더없는 은신처
市民 무관심·犯人 뗴지어활보



◇주범 李相勳과 내연의처들이 자수한뒤 더 버틸힘을 잃고 자수해온 탈주공범 崔殷相(左)과 馬弘植(右)이 수사관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

우리는 탈주범들을 5차례나 잡을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제발로 걸어 들어올때까지 속수무책 이었다. 강화돼가던 검·경찰의 수사망,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사건을 부각시키고 있던 매스컴에 비해 시민들은 너무나 무관심했기에 「모처럼의 기회」는 아깝게 사라졌다. 만일 탈주범들이 밀고자등에 대한 복수의 유혈극을 벌였다고 가정한다면 이 「무관심」 의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탈주범들은 5일동안 서울시내 중심가와 변두리를 넘나들면서 은행, 전당포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고 여관과 호텔에 투숙했으며 대낮 거리를 활보하거나 택시를 타곤했지만 은행원이나 전당포주인은 물론 숙박업소 종업원, 택시운전사까지도 누구하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또 경찰관들은 탈주범들이 집단으로 투숙한 숙박업소를 형식적으로 임검해 이들을 잡을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리기도 했던것이다. 뒤늦게 행적이 밝혀지자 관련자들은 「현상금 1천만원 놓쳤다」고 탄식하고 있는 실정.

이번 탈주사건수사가 초동단계부터 탈취차량의 번호가 바뀌어 수배되는등 차질을빚은것은 차치하고라도 검·경합동수사망이 펴진 6일이후에도 시민의 비상망은 허술하기만 했다.

첫번째 검거기회는 탈주다음날인 6일 상오10시께 있었다. 탈주범들은 文仁子씨와 徐外來씨등 두여인과 함께 서울鍾路區樂園洞273 동진사 전당포(주인 沈相夔·60)에 들어가 文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주민등록번호(570507-1280827)와 주소(서울永登浦區新吉洞2335)를 기재하고 3돈짜리 다이어반지를 맡기고 18만원을 빌어갔다.

文씨등은 배가아파 병원에 갈돈이 필요하다면서 빌었고 주인 沈씨는 전혀의심을 하지않았는데 경찰의 수배전단도 내려오지않은 상태였다.

두번째는6일과7일밤으로 이들5명이 단체로 투숙했던 레인보우산장. 이들은 숙박부에 「임춘규 28세 주민등록번호 460803-1121 0218의 3명」이라고 기재했는데 종업원이 「주민등록 생년월일은 46년생인데 나이는 28세냐」고 묻자 李相勳은 당황한듯 얼굴을 붉히며 「주민등록증을 안가져와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그러나 종업원은 남자3명과 여자2명이 함께 투숙했고 「임춘규」로 가장한 李의 당황하는태도를 보고서도 아무런 의심도 하지않았다.

또 경찰은 탈주범들이 투숙해있던 이틀동안 임검을 나왔으나 아래층과 301、302호만 돌아보고 이들이투숙한 307、308호에는 들르지도않은채 돌아갔었다.

金모순경등은 7일밤에 새로 투숙한 사람만을 상대로 임검했기때문에 6일에 투숙, 이틀째 잠을 자고 있던 범인들의 방에는 관심을 두지도 않았었다는것이다.

세번째는 文·徐가 서울신탁은행 堂山지점에서 적금을 찾은 8일상오11시20분께。이날 文·徐 두여인은 20여분동안 은행에서 서성거렸으며 이때 은행에는 많은 고객들이 있었으나 은행원이고 고객이고 모두 두여인에게 관심을 두지않았다.

더구나 이들이 찾은 1백92만2천원은 文仁子명의의 적금이었는데도 은행원은 文仁子의이름을 묻지못했는지 신고가없었다.

네번째는 李가 자수하기 전날인 8일밤。이들 5명은 이날밤11시30분께 서울龍山區梨泰院洞 해밀턴호텔로 가 9일 새벽까지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시간을 보내다 「임춘규」 라는 가명으로 531호와 539호실에서 잠을 잤는데 이때 호텔에는 永登浦와 南大門경찰서 형사들이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고 종업원들에게 정보연락공작까지 펴놓았으나 범인들은 무사했던 것이다.

다섯번째는李가자수、공범들과 헤어진 서울恩平區佛光극장주변에수사망이 집중됐을 9일하오6시께로 崔와 馬는 현장부근에 갔다가 무장경찰들이 집중해있자 몸을 피해 중국집에서 여자들과 저녁을 먹고있었다는것이다.

수사본부의 관계자는 강력사건의 범인들을 수배할때마다 겪는일로 숙박등접객업소와 은행등공공기관의 대민종사원들에대한 범죄계몽및홍보활동이 부족했음을 느꼈지만 이번사건에서 다시한번 절감했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이 이런큰사건이 터지면 범인들의 인상착의특징을 기억해보는 자세와 신고태세를 갖추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都心철저수색 不能
犯人들 13곳돌르며 버스·택시 25회利用

결국 이번사건은 8백50만의 시민이 붐비는 만원서울이 범인들의 은신처로는 가장알맞은곳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복잡한 도시구조에다 제각기 자기일에 바빠 범법자에게는 무관심했다. 게다가 무허가 여인숙、여관에서부터 호텔까지 숙박시설이 다양하고 경찰관의 숫자가 태부족이어서 밤마다 이잡듯 뒤진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러한 허점을 노려 범법자들은 눈에 잘띄는 한적한 시골보다는 만원 서울로 파고드는 것이다.

이번 수사결과 탈주범들은 5일밤부터 각종 여관·호텔·유원지·극장등을 활보했고 관·호텔·은행·전당포·극장·시장등 13개소를 돌았으며 교통편은 시내버스 5회, 택시15회를 이용했다.

3명 脫走犯 罪目

10일 수사본부에따르면 李相勳등 탈주범3명은 특수도주 혐의외에 택시를 빼앗고 안에있던 운전사 柳英桓씨의 수입금 1만7천원을 훔쳐 달아났기 때문에 특수강도혐의로 추가 기소된다.

라고 소리지른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신고를받은 경찰은 중상을 입고 신음중인 김씨를 병원으로옮겨 응급치료를 받게하고 치정이나 원한에의한 범행이아닌가보고 김씨주변인물에대한 집중적인 수사를폈다.

경찰은 주변인물 수사와 더불어 가족관계에대한 수사도 벌이던중 ▲김씨가 토건사업을하다실패, 6백여만원의 빚을 지고있는것과는 달리▲지난79년7월1일자로 H생명 목포지사에 정기특약 5천만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으며▲이밖에 동생김군과 처 김여인이 몹시 피로와 하고있는사실등을 중시, 집중추궁끝에 3명이 보험금을 노리고 꾸며낸 범행임을 밝혀냈다.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國民樂會 작곡발표

國民樂會(회장 金亨柱·사진)의 첫번째작곡 발표회가 11일 저녁7시30분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國民樂會는 전위음악, 보수음악등의 작품경향을 떠나 「國民音樂」을 진흥해 보자는 뜻으로 조직되었으며 이번 발표회에는 尹良錫·咸泰均·宋在哲·金鎔瑚·金亨柱·趙念씨등의 작품이 발표된다.

한국일보 詩壇

깨구락지 소리

金相默

강남 삼성동에서 다이얼을 돌리노라니
문득
뒷밭너머로 우는 깨구락지 소리

숭기도 뒤 마당귀퉁 창포잎이 남아
마지막 자연으로 흔들리는 고샅
부동산 간판 그늘 저녁 걸음
빈손이 차라리 무거워 떨리는 가슴에
제마직서 이마직서 그렇게
옛소리마냥 고향소식마냥
또 들리는 깨구락지들 우는 소리

얘들아, 아빤 왜 오늘도
술에 취했을까 몰라
개굴개굴 개굴개굴…

스시 · 빠
신설개업

뉴-서울

연중무휴

뉴서울을 애용해 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의 성원으로 6월11일(목)부터
스시·빠를 신설개업케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보다 더 훌륭한 음식장만을
위해 뉴욕에서 매일 싱싱한 각종생선을
들여오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뉴·서울의 음식맛은
한층 더 빛날것이며 훌륭한 예술품·
음식창달의 정성을 다하게 될것입니다.
계속 뉴·서울을 애호하시옵고
배전의 성원을 바라옵니다.

박 인 순

뉴서울전속무용단

*피로연, 회갑잔치등 단체파티 각자 써비스 (버페)
가격은 50명~100 명까지 1인당 $10.00
100 명 이상 초가인원은 1인당 $9씩 계산함

영업시간(연중무휴)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4시~밤10시까지)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TORONTO, ONT.
전 화 : 533-3545~6, 533-1500

共同구매 赤字家計 돕는다

主婦교실中央會「物價高 이겨내는 지혜」강연회

각종 공공요금의 引上 파문이 즉자 가계부에 영향을 미치고있다. 가계부가 받는 충격을 줄여나가려면 가계운영의 여러가지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야한다. 주부교실중앙회는 11일 전경련회관 3층에서「물가인상충격에서 벗어나는길」에 관한 강연회를 갖는데 이날있을 徐炳淑교수(한양대)의「物價高를 이겨나가는 진족가계운영사례」를 정리해본다.

◇충동구매는 家計를 더욱 압박한다. 슈퍼마키트에서는 눈높이에 진열한 물건이 가장많이 팔린다는 통계도있다.

미리計劃세워 品目적어가고
이웃끼리 中古品 교환해사용
간단한 집수리·理髮은 가족끼리
분수안맞는 생활경쟁 삼가야

물가가 오르면 정해진收入에 의존하는 家計는 마이너스를 기록할수밖에없고 이를 메우려면 연구를 해야한다. 첫째는 되도록 공동구매를해서 좀더싼값에 물건을 사는 방법이있다. 아파트주부들이 많이 시도하고있는데 반상회 등을통해 이웃끼리 공동구매를 하고있다. 공동구매가 가능한 생활필수품의 목록을 작성해놓고 그필수품을 생산지나 공장, 도매시장에서 구입한다.

둘째는 이웃끼리 물건을바꿔쓰는 방법이다. 우리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면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있는 가구, 입지않는 의류, 쓰지않는 그릇, 각종아동용품이 적지않다. 이런물건중에는 남에게는 요긴하게 쓰일만한것들이 많다.

미국과같이 잘사는 나라에서도 중고품 교환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가정의생활용품중 19%가 이 중고품교환에의해 마련된것이라고한다. 우리나라 주부들은 절약하려는 의식은 강하지만 실제로 이같은 물건교환과 활용에는 대단히 소극적인 편이다.

세째로는 소비자 자신의지혜를 개발해서 가계부의 마이너스를 메우도록 해본 지출은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충동구매를 여제하도록 한다. 물건을 사러갈때는 꼭필요한 물건의 목록을 적어두고 간다. 대개 실내장식이 잘돼있는 가게, 서비스가 좋은 가게에서는 충동구매를 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빵·과자류, 완구류등은 가게에 들어가서 살마음을 먹는경우가 70%~90%가 된다고 한다. 슈퍼마키트에서는 눈높이에 놓여놓은 상품이 허리높이에 놓여놓은 상품보다 63%가 더 많이 팔린다는 연구도 있다. 이런조사들은 충동구매에 의한 소비가 상당함을 말해준다.

가족들이 할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분담해서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본다. 가정부나 파출부를 두지않고 가족들이 가사를 분담하고 집안의 사소한 수리나 칠하기등도 비싼 인건비를들이지말고 가족들이 해본다. 남편이나 아이들의 이발은아내가 해주고, 아내의 머리커트는 여자형제나 이웃부인을 끼리 도울수 있다.

간단한 옷은 직접 만들어 입거나,헌 옷을 수선하고 개조해서 입기도 한다.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미국시민들은 의류에 쓰던 돈을 60%나 절약한다고 한다.

남편의 용돈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이제는 남편도 교통비, 담배,코피, 점심 값까지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절약은 가족자의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가전제품은 사용빈도가 높은 것만을 구입한다. 각 가정마다 별로 사용할 기회가 없어서 깊숙이 넣어둔 전기기구가 하나 둘씩 있게마련이다. 쓸모가 적거나 전기소모량이큰 전기제품은 미리계산해보고안사는게현명하다.

식품, 피복, 주택사용의합리화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요점이 된다. 식단은적어도 3일분정도를 미리 짜두어야 절약이 된다. 식품은 적은양을 팔지 않는것이 많아서 식구가 적은 집은 손해를 보게 된다.

미리 식단을 짜놓고 구입을 하면 식탁에도 변화가 있고, 영양의, 균형도 갖출수 있다. 일단 구입한 식품에서 먹을수있는 부분은 버리도록하고, 너무많이 조리해서 음식이 남지않도록 한다.

의복의 경우, 섬유의 보존방법과 세탁방법등을 연구, 그 과정에서 옷을 상하게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입지않는옷을 활용, 남자바지 두벌로 여자의 스커트를 만든다거나 남자의 와이셔츠로 어린이의 원피스나 블라우스등을만들어 입힌다. 될 수 있으면 재단과 재봉솜씨를 익혀두어서 옷을 새로사는 일을 줄이는것이 좋다.특히 아동복은 값비싼것을 사지말고 실용적이고 활동적인것을 골라야한다.

주택의 경우, 집의 수명을 연장시키려면 항상 청소를깨끗이 해야한다. 가구와 내구용품의 경우도 깨끗하게 사용해야 오래 쓸수있다. 가구와 내구용품은 견고하고 값싼 종류를 고른다. 유행에 따라 고급품만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일이다. 고급품이 반드시 가치가 있는것은 아니며 유행을 만들어 내어 이득을 보는것은 생산자나 판매자이지 소비자가 아니라면것을 명심해야한다. 또한 이웃이나 친지간에 생활에 대한 경쟁의식을 버리는것도 중요하다. 이웃간의 경쟁의식은 자기분수에 맞지않는 헛된소비생활을 조장한다.물가인상이 가계부에 일으키는 파문은 어느 가정이나 비슷한 정도로 충격적이다.

서로 같은 病을 앓고 있다는 同病相憐的인 연대의식을 가지고 염가정보의 교환, 빈집 보아주기,아기보아주기, 같은 방향의 차 태워주기,김장철의 일손돕기등을 서로생활화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高桂源기자】

나의 이력서

<題字·玄信圭>

玄信圭 ⑤5

奇蹟의 소나무

成長빠르고 強해…「푸른山」희망넘쳐

美國에도 보내…'우수新種,上院까지 보고

리기다와 테다의 1대잡종(리지테다 혹은 리기테다) 소나무가 자라는 묘포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보람의 産室이었다. 이 신종소나무는 리기다보다 성장이 앞섰고 월등도 가능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조림의 가능성을 예고한것이었다. 벌써리지테다 松林으로 덮여 푸르러가는 산의 환상에젖기도했다. 희망은 용기를 배가 시킨다. 우리는 미국 산림국 입무관으로 派遣되어나온 커컴씨를통해 미국 산림국에 부탁하여 테다소나무花粉을 비행기로 수송해왔다.

이 화분을 水原市 서둔동에있는 10년생내외의 리기다소나무를 母樹林으로하여 교배했다.

리기다의 암꽃을 비닐봉지로 미리 싸두었다가 松花가 활짝핀후 테다화분을 주사기에 담아 일일이 교배대(袋)안으로 뿌려주는 것이다.

처음엔 수백개정도의교배대로 시작했으나 차츰 교배대의 수를 늘려갔고 대량생산을위해서 모수림을烏山의 리기다松林으로 옮겨정했다.

한해 6파운드(소두 1말정도)의 테다화분을 미국에서 수입해다가 교배대 3만개에 주사했다. 이 많은 양을 단시일안에 교배처리하기위해서는 대학생은 물론 국민학생들까지 동원해야했다.

烏山 리기다松林은 松花가피는봄이면 장관을 이룬다. 松花대신 겨울철의 雪花가 핀듯 3만개의 비닐봉지가 열린다.

이같은 대규모 인공교배로 연 5∼10kg(약30만∼60만알)의 리지테다 씨앗을 생산, 각도와 영림서에 의뢰하여 1백70정보에 시험식재를했다. 비교시험을위해 리기다와 리지테다를 교호로 밭복식재를 했던것이다.

이 시험식재결과 리지테다는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된 리기다보다도 2·5배나 성장이 빠르고 모양과 재질이 좋으며 병충해에도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松林의 적인 솔잎혹파리 같은 虫害가 거의없고 地力이 쇠한 박토나 山勢가 나쁜 지형에서도 훌륭한 성장력을 보여주어 한국의 토양과 풍토에 최적의 소나무로 판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에서도 증명해주었다. 58년, 미산림국에서 리지테다소나무 씨앗을 보내달라는요청을 받고 4ℓ의 종자를 수출했으며 니 이를 메릴랜드와 일리노이등지에 시험식재를 했다.

그곳은 주로 광산지대로 토질이 좋지못한 땅이어서 미국산 테다는 거의 자라지 못했는데도 한국에서 가져간 새종자는 우수한 성장성적을 기록했다. 이 사실에 놀란 미상원의 알렉산더·윌리의원이「한국의 기적의 소나무」로 상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무 환영했던 것이다(62년7월18일). 또 미삼림국 중북부임업시험장 베이사와 메릴랜드대학 게니스교수의 삼림식재성적 발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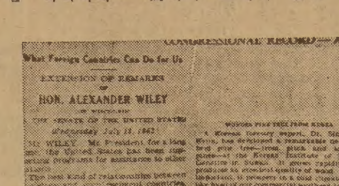
지금도 펜실베이니아의 브루멈에 있는 동북임업시험장의 요청으로매년 5∼10kg정도의 종자를 보내고 있는데 미국지에서 이 소나무의 종자를 찾고 있기때문이라한다.

리지테다 종자는 미국외에 캐나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레일리아 日本등지에도 그들 나라의 요청에따라 보내졌다.

또 세계 여러곳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도 소개되었는데 미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후 리지테다로 이루어진 미국내 9개 시험지중 일리노이의 포포에 있는 시험지를 시찰했다. 나는 그곳에서 비옥하지않은 땅에서는 테다보다 더 좋은 생장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 리지테다의 우위성을 확인했다.

리지테다소나무는 이제 세계의 소나무로 각광을 받게 될것이다.우리들은 모처럼 보람을 찾았고 우월감도 맛보았다.

그러나 나는 리지테다를 볼때마다 이소나무 씨앗처럼 먼저 흙속에 묻힌 異畔會군의 영혼을 만나다.성실과 열성으로 安應綿씨를 도와 소나무육종에 혼신하다가 위암으로일찍잖는데 乘田도 소나무결에서살고 싶어한 군의 유언에따라 오목리 시험림에 묻혔다. 죽어서도 리지테다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을 그의 영혼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CONGRESSIONAL RECORD — APPE

What Foreign Countries Can Do for Us

EXTENSION OF REMARKS OF HON. ALEXANDER WILEY OF WISCONSIN

IN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Wednesday, July 18, 1962

WONDER PINE TREE FROM KOREA

◇62년7월 미상원에 제출된「한국의 기적ー의 소나무 리지테다에 관한 보고서내용.

◇테다花粉을 교배할 리기다松林은 봄철에 비닐봉지가 열려 雪花가 핀듯 장관을 이룬다.

보험금自害…양팔切斷

동생·부인시켜 5千萬원 타려고

【木浦=聯】보험금을 타내 빚을 갚기위해 부인과 남동생을 시켜 자신의 양팔목을 절단케한 끔찍한 보험사기미수사건이 발생했다.

목포경찰서는 10일하오 김모군(19·무직·목포시 호남동)과 金英愛여인(26·목포시 호남동1-)을 사기미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팔잘린김여인의남편金錦錫씨(27·목수)를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9일밤10시30분께 목포시 호남동 6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친형 김씨를 땅바닥에넘어뜨린후 현이가지고있던 목수용 손도끼로 형의 양팔목을 잘랐다는것.

蔡文卿 오르간독주회

오르가니스트 蔡文卿씨(사진)의 파이프·오르간독주회가 11일 저녁7시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연주곡목은 북스테후데의「꼴래류드와 푸가」D장조, 바하의 소나타6번G장조 작품530, 메시앙의「환희」, 李永鉉의「오르간을 위한 豊」등.

蔡文卿씨는 梨大 베를린音大를 졸업하고 西獨에서 여러번 연주회를 가져 호평을 받았던 현재 세종문화회관 전속 오르가니스트이며 大·延大에 출강하고있다.

각종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 Lite Signs Co.)

777 Warden 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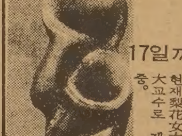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姜泰成조각전

17일까지 東崇洞 문예회관



◁姜泰成작「母子像」

제5회 姜泰成조각전이 12일부터 17일까지 東崇洞 문예진흥원미술회관에서 열린다. 작품「海律」로 제15회 國展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姜씨는 國展초대작가·同심사위원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梨花女大美大교수로 재직중.

現代人의 健康百科

眼球突出

통증·눈물·視力감퇴·充血등 나타나

眼球突出이란 눈알이 정상인보다 유난히 튀어나온증세를 말한다. 정상인의 안구돌출도는 突出計로 측정하여 15㎜이다. 이수치가 20㎜이상되면 안구돌출로 본다. 한마디로 안구돌출이라하나 그원인은 다양하다. 惡性近視나 선천성 大眼球症때처럼 眼球容積이 커져서 생긴경우가있는가하면 안구는 정상 크기인데 안구 뒤의 眼窩용적에 변화가생겨서오는 경우도있다.

이에속하는 대표적인 병으로 甲狀腺기능항진증(그라베氏병)이 꼽힌다.이때 증세가 兩眼에 모두 나타난다. 안구뒤의 근육이 부풀어올라 안구돌출현상이 나타나게된다.

이와함께 눈의통증, 눈물흘림,눈부심, 시력감퇴, 충혈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같은 증세가 나타나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이 3기쯤 진행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시기가 지나서 4기가 되면 外眼筋마비증세가 나타나 複視현상이 오게되며, 좀더 진행되면 눈을 감지 못하게되고, 결국 노출성 角膜炎이 생긴다(5기). 이어서 혼탁이 오고, 시신경위축으로 視力장애가 오게 된다(6기). 이런患者는 눈말고도 頸脈신경과민, 체중감소등 전신증상이 있게 마련이다. 갑상선기능 항진증에대한 내과적인 치료와함께 안구돌출증을 치료해야한다.

안구돌출은 이밖에도 眼窩內의혹(腫瘍)등의 종양 白血病,임파종, 外傷과 炎症이 있을때, 또 外眼筋마비로해서도 생길수 있다. 이때에는 흔히 한쪽 눈만이 침범되기 때문에 앞서의 甲狀腺기능항진증때와 쉽게 구별이 된다. 종양이 원인이 된 때에는 서서히 안구돌출이 나타나는것이 특징이다. 엑스線검사, 초음파, 단층촬영, 혈관촬영등으로 쉽게 진단할수있다. 조기에 알아내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內科的 치료도 필요하다. 즉 염증성일때에는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제등의 투여는 물론 때로는 放射線照射 치료를 해야한다. 악성종양으로 시력과 생명에 지장을주면 수술로 제거해야한다.

한편 눈알이 정상인에 비해 움푹 들어가 있으면 眼球함몰이라한다. 안구돌출과 정반대되는증세인데 주로 노인들에게서 찾아 볼수 있다. 眼窩지방조직이 노쇠위축되어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아때 안와뼈의 骨折이 있을때도 나타날수있다. 또 선천적인 小眼球, 안질등으로인한 일시적인 안구위축이 있어도 마치 안구함몰이 된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金在浩 〔醫博·가톨릭醫大江南성모병원안과장〕

獨슈테른誌 보도

「日記」의 眞僞가려줄 안네의 편지 發見

【프랑크푸르트=南政鎬특파원】조작여부로 말썽을 빚고 있는「안네·프랑크의 日記」의 眞僞를 판가름해줄 안네의 편지가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있다.

『할머니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로 시작되는 이편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화란의 암스테르담으로 이사간 안네가 7살때인 1936년12월18일 스위스 마젤에살고있는 할머니에게보낸 편지이다. 7살답지않은 달필로 할머니에대한 사랑을담고있다.

이 편지는 딸인 안네의 일기를 첨삭(添削)한 것으로알려진 아버지 오토씨의 친구였던 화란인이 서독의 권위있는 주간지슈테른에 넘겨줌으로써 빛을보게됐다.

이 편지외에도 안네가 이편지를 쓴 6개월후에 할머니에게 보낸 제2의 편지와 어릴때 사진도 슈테른誌에 함께 전달됐다.

현재 이편지와 사진등은 슈테른誌가암스테르담의화란왕실 전쟁문서보관기관에 기증, 보관되어있는데

海外화제

內容은 祖母생일 축하한것
原本 筆蹟감정에 도움줄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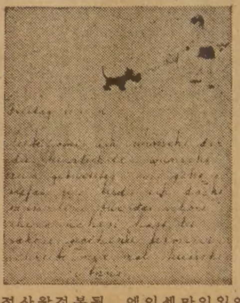
「안네·프랑크의 日記」의 위조부분 감정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2차대전중 나치치하에서「안네·프랑크」란 유태인 소녀가 쓴「안네·프랑크의 日記」는 대전후 56개국어로 번역돼 약 1천6백만부가 출판되었으며 영화화되어 수천만 세계인들의 눈시울을 적셔주기도 했다.

이 일기는 안네가 암스테르담프린센街263번지에있는 다락방에 숨어살때 쓴 것이다. 일기를 쓴 안네와 동생들과 어머니는 후에 베르겐·벨젠 강제노동수용소에서 학살됐으나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 오토씨가 1947년 책으로 펴어냈다.

그러나 이 일기는 많은 부분이 아버지 오토·프랑크씨에의해 조작되고 첨삭됐다는 주장이나와 말썽을 빚어왔다. 현재도 프랑크푸르트와 함부르크의 법원에 진위판가름이 계류되어있다. 수수께끼의 주인공인 안네의 아버지 오토씨마저 80년8월 스위스에서 세상을 떠남으로써 판가름이 어렵게 됐었는데 이번에 편지가 나타난것이다.

관계자들은 이번에 발견된 편지가 안네·프랑크원본의 필적감정에 도움을줄 것으로 보고 있다. 화란의 왕실전쟁문서보관기관은조사가 끝나면 내용을 새로 정리,82년까지는 새「안네·프랑크日記」를 내놓겠다고 밝혀 독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슈테른誌가 보도한 안네의 편지. 안네가 7살때 할머니에게 쓴 이 편지는 조작여부로 말썽을 빚어온 안네·프랑크日記의 진위를 판가름해줄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여성新刊

「건강 離乳食」

金璟鎭 著

영양학자 金璟鎭교수(淑大)가「건강離乳食」이란 책을 펴냈다. 이책은 아기의 발육에 따라 초기·중기·후기의 이유식을 조리법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임신부의 건강, 産前·産後의 음식관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쓰고있다. 부록으로 月齡別 아기음식표, 예방접종표, 아기에게 맞는 장난감을 곁들였고 컬러화보를 넣어 호화롭게 꾸몄다. 【民瑞출판사刊 4·6倍版 162페이지 8천원】

女性界 소식

어린이 주말캠프

서울YMCA 종로지회는 13일·14일 산정호수에서 국민학교 어린이를위한 주말캠프를 갖는다. 문의전화 ㉒8 2910

婦女 성공手記모집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는 부녀새마을성공수기를 모집하고있다. 마감 30일, 길이는 2백자원고지 30~35매 정도면 된다. 보낼곳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산77의 10 새마을부녀회 (㉝0071)

「암페」 축하모임

金惠英씨(국제문화협회문화국장)의 세계여기자·작가협회(AMPE)회장 당선과 서울사무국 개설을 축하하는 모임이 12일저녁 6시 플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열린다. 회비 3천원, 연락처 ㉒7117.

流星의 賦 <10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紀昌의 길 ⑪

고함을 지르려는데 계남의 팔을 잡은 사람의 소리가 다급하고 처량했다.

『부탁이다. 도련님 우리는 지금 쫓기고 있다. 벌써 저게까지 왔단』

하며 더벅머리 총각이 속사였다.

『이 처녀를 데리고 저게 저 물레방아있는 곳에가서 잠시 숨어 있어 주지않을래. 내가 여기서 목을 지키고 있다가 저사람들을 물리치고 나면 그리로 갈께. 내가 만일 붙들려 가기라도 하면 이처녀를 도련님이 맡아서 살려주오. 어서 빨리』

달빛아래 아슴푸레 사람들이 저편에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계남은 무작정 처녀의 손을 끌고 낮에 눈이 익어있는 물레방아를 향해 달렸다.

『순네야. 네가 어디 있어도 내가 꼭 찾아갈께』

하는 총각의 말을 등뒤로 들었다.

물레방아가 있는곳은 주막집에서 오마장가량 되는거리에 있었다.

방앗간은 텅텅 비어 있었다.

방앗간 한구석에 거적을 깔고 처녀를 앉게하고 계남은 바깥으로 나와 주막쪽을 보려고 했으나 거리가 먼데다가 언덕이 가려 보이지 않았다.

계남이 방앗간으로 다시 들어가 처녀옆에 앉았다.

처녀는 거친 숨소리만 낼뿐 말이 없었다.

계남은 어디서부터 물어야 할지 알수도 없었고,말을 하다간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지도 몰라 그저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총각은 나타나지 않았다. 멀리, 또는 가까이에서 닭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새벽이구나. 선생님이 나를 찾으실텐데 어떻게 하지?)

하고 우물쭈물 하는 기분으로 되었는데 처녀의 말이 있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가부다. 도련님 한번 알아보고 오지 않을래?』

『알아보고 올 터이니 여게 가만 기다려요』

하고 계남이 주막으로 돌아왔다.

『어딜 잤더냐』

고 김달손이 반색을 했다.

계남이 어젯밤 있었던 얘기를 대강 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만 있었는데 그럼 그 총각과 총각을 쫓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하고 주막집 주인 내외에게 달손이 물었으나 그들도 전연 아는바가 없었다.

『계남이 꿈을 꾼 것은 아녀데지?』

달손이 근심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아냐요. 그 총각의 부탁을 받고 처녀를 물레방앗간에 데려다 두었는걸요』

『흠』

하고 달손이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자기의 옷보따리를 풀어 옷을 한벌 꺼내 계남에게 주며 분부했다.

『그 처녀에게 이걸입혀 이리로 데리고 오도록해라』

계남이 그걸 갖고 방앗간으로 가서 처녀를보고 아무런 흔적도 없더라고 알리자 처녀는 그자리에 엎드러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왜 우느냐고 묻는 계남의 물음에 눈물 사이로 대답한 처녀의 말은.

『아무래도 붙들려 갔을 거라. 붙들려 갔으면 맞아 죽을꺼라. 나를 찾아내라고 때리고 또 때렸을 것이니 죽지않고 어떻게 견디어낼깐』

겨우 타일러 계남이 남복으로 갈아입은 처녀를 데리고 주막으로 돌아갔을때는 아침해가 째울라와있었다.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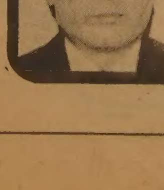
MR. 심

킴스 카메라 및 트로피

Kim's Camera & Sound

항상 교민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코저 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취급품목 : ● 카메라(Nikon, Pentax, Yashica등) ● Movie카메라 일체 ● 각종렌즈 ● 라디오, 망원경, 트리포트 영사기, 환등기, Flash ● 전자계산기 ● Vedeo Set, 카메라, 테프 전축바늘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토론토한인 테니스 클럽 회원모집"

테니스를 좋아하거나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 친목과 연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장 소 : 더프린 Mall건너편 공원속 (더프린×블루어)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전11시

시 작 : 6월20일(토)부터

※김가별, 이건영 선생의 쥬니어및 성인남녀 무료 렛슨

연락처 : 바시티 운동구점 967-7304

김일현 881-9232

장북성 964-2990.

토론토 한인 테니스 클럽

제4회 친선 사격대회

본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4회 친선사격대회를 갖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1년6월27일(토) 오전10시정각 (우천불문)

장 소 : 토론토 Gun Country Club(약도참조)

시 상 : 참피온 1명, AA, A, B, C, 쥬니어 각각 1, 2, 3등및 단체상.

사격종목 : 트랲

참 가 비 : AA, A급($30)100발사격
B, C급($20)50발사격
쥬니어($15) 50발사격
단체팀($30) 3명1개조 각25발 사격

기 타 : 1. 총이 없으신 분은 본 협회에서 제공하며 실탄은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음.
2. 음료수는 본협회에서 제공함.

문 의 처 : Mr. 한 757-1097.
Mr. 백 755-7635

재 카나다한인사격협회

회장 백경락

"학교에 무슨 새로운 일이있니, 엘모야?" "교장선생님을 거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분이 너한테 심부름을 시키신다는 말이니?" "아뇨, 매 때리는 연습 상대로요"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외동孫女살리려다 할머니轢死
언덕서 구르는트럭 몸으로막아 손녀重態

어제 서울高尺洞서

경사진 골목에 세워둔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길에서놀던 손녀를 덮치자 옆에서 구경하던 할머니가 구하려고 뛰어들었으나 할머니는 숨지고 손녀는 중태다.

10일 하오5시10분께 서울 九老區 高尺1洞 51 현대상가 앞에서 仁川市 北區 富平洞 6의1 朴根洙씨(32·상업)가 세워둔 경기8나 4109호 2·5톤 엘프트럭이 5m가량 미끄러 지면서 차 앞에서 놀던 이동네 李漢洪씨(28·회사원·九老區高尺洞57의62)의 18개월된 외동딸 榮林양을 덮치려하자 2m 떨어진 곳에 있던 할머니 趙一禮씨(59)가 손녀를 구하려고 뛰어들어 손녀는 밖으로 밀어냈으나 할머니는 그자리에서 숨지고 榮林양은 중태다.

이날사고는 朴씨가 수금하러왔다가 이동네에사는 동생집에 미리와있던 부인과 딸 선양(3)을 태운뒤 경사5도가량의 주택가길에 사이드·브레이크만채워둔채 10m 떨어진 식료품가게에 간사이 3살난딸이 손으로 사이드·브레이크손잡이를 풀리는바람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일어났다.

숨진 趙씨의 며느리金恩淑씨(24)에 의하면 숨진趙씨는 이날 하오『애를 봐줄테니 그동안 집안일을 하라』면서 榮林양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것.

◇손녀를 구하다 숨진 趙一禮할머니.

市道대항卓球
裡一여고·好壽敎 쟁패
安養·明知 물리치고 女高部

【全州=李鍾元기자】제7회 국무총리기쟁탈 전국남녀 시도대항 탁구대회 3일째 경기가 10일 全州체육관에서 열려, 여고부준결승에서 전북 裡一女高와 충남 好壽敎女高가 각각 승리, 결승서 패권을겨루게 되었다.

예선A조1위의 裡一女高는 준결승에서 B조2위의安養女高와 2-2의 타이를이루며 접전, 제2차 복식에서 李明淑조와 제4차단식에서 梁英子·金恩熙조가 金朋子·梁英子가 金朋子를제압, 4-2로 승리했다.

B조1위의 好壽敎女高는 張金玉과 柳基運, 그리고 金容美, 權英順복식조의 활약으로 초반 승세를 굳혀 A조2위의 明知女高를 4-2로물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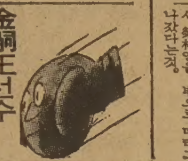
이날부터 시작된 여자일반부리그에선 釜山코카콜라가 光州銀行을 4-0으로제압, 1승을 올렸으며 여대부에선 서울同德女大와 경북曉成女大가 각각1승을 거두고 서전을 장식했다.

◇제3일전적
▲여고부준결승
전북이일 4-2 경기안양
충남호수돈 4-2 서울명지
▲남국부결승
경북대명 4-1 전북여산
▲동순위=①경북대명 ②전북여산 ③서울중앙
▲여국부결승
대구동인 4-2 정읍서
▲남중부A조
충남대신 4-2 서울대광
▲동B조
전북만경 4-0 충북청주
전남무진 기권 강원섬수
▲여중A조
충남신일 4-0 전북이일
▲여대부
경북효성 4-0 전북전주교
목포실전 기권 경기인천체전
서울동덕 4-0 전북전주교
효성여대 4-0 목포실전 (경북)(전남)
▲남대부
전남대 4-1 전북대
한성대 4-3 경기대
▲여일반
부산코카콜라 4-0 광주은행
서울신탁은 4-1 외환은 (서울)(전북)

윔블던大會에 不參
同性愛말썽 킹女史

【런던9日AP=聯合】최근 동성애염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있는 美國의 테니스스타빌리진·킹여사(37)는 8일자신이 지금까지 20년간 계속출전해온 윔블던大會에 금년에는 출전하지않겠다고 밝혔다.

金嗣王선수 自殺기도



【光州=聯合】사각의 링위에서 무지막하고 코믹한 재담을 벌여 팬들의 인기를 모았던 프로권투선수 金嗣王씨(23·서울中區會賢洞77)가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9일상오11시30분께 경기도廣州郡中部面山城里 南漢山城뒤계곡에서 金嗣王선수가 술을 마신뒤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신음중인것을 廣州경찰서 중부지서(山城)金光洙순경(28)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다.

種別핸드볼 開幕 光州
永東고·東亞고·忠州여상등 1승

【光州=聯合】제36회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가 남중2、여중5、남고6、여고4、남대6、여일반6、남일반4개팀등 35개팀이 참가한가운데 10일 光州실내체육관서 개막되었다. 첫날 여일반A조 예선리그서 仁川市廳은 祥明女師大를 26-10으로 누르고 승리했다. 남고A조서는 永東高가 慶南大同工에 30-14로 대승했고 B조서 釜山東亞高는 金堤農高에 23-17로 완승했다. 한편 여고A조서 강호忠州女商은 井邑女高를 17-12로 격파했고 全南體高는 釜山南女商을 19-13으로 제압, 첫승리를 거두었다.

◇제1일전적
▲여일반A조 인천시청 26(17-4 9-6)10 상명사대
▲남고A조 영동고교 30(13-5 17-9)14 대동기공
▲동B조 동아고교 23(12-11 11-6)17 김제농고
▲여고A조 충주여상 17(8-7 9-5)12 정읍여고
▲동B조 전남체고 19(8-7 11-6)13 부산남여상
▲여중부리그 광주중앙 23(13-6 10-4)10 동방여중

월드컵 陸上에 한국선 못끼어
亞洲예선 慘敗로

9월4일부터 6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되는 제3회 월드컵육상대회에 출전할 44명의 아시아대표에 한명도 선발되지 못했다.

아시아 육상연맹(AAA)은 10일 월드컵대회에 파견할 아시아지역대표로 日本 선수22명·中共12명·印度 3명·쿠웨이트와 泰國 각2명·이라크·말레이지아·필리핀각1명등 8개국에서 44명의 선수에다 日本의 헤드코치를 비롯한 투기·고가케씨를 구성 발표했다.

…서 참패를 당한 韓國은 오는…

慶福·中央女高등 선승
서울市排球 30개팀 출전

제1회 서울특별시장기 쟁탈 중별배구대회겸 전국체전 1차예선대회가 남대2、남고2、여고5、남중3、여중6、남국6、여국6개팀 등이 출전한가운데 10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첫날 남중부서는 전통의仁昌中이 典農中에 2-0으로 가볍게 승리했으며 여중B조서는 漢陽女中이 15-5、15-3으로 瑞文女中을꺾었다.

13일까지 속개될 이번대회는 남대·남고·남중부는 리그로、남국및 여국부는 토너먼트로 우승을 가리게 되며 6개팀이 출전한 여중부는 2개조로 상위2팀이 결선에 진출、토너먼트로 패권을 가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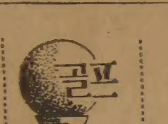
◇첫날전적
▲여고부
경복여상 3(15-5 15-3 15-3)0 한양여고
중앙여고 3(15-9 15-4 16-14)0 서문여고
▲여중부B조
한양여중 2(15-3 15-5)0 서문여중
▲동A조
일신여중 2(15-9 15-11)0 성암여중
▲남중부
인창중학 2(15-3 15-3)0 전농중학
▲남국부
천신 2(2-0 2-0) 숭신 회영
▲여국부
곡천 봉명 2(2-1 2-1) 대명 동신

漢陽工 4强에
MBC中高럭비

【大邱=聯合】제6회 大邱MBC사장기 전국중고 럭비대회 2일째 경기가 이곳 시민운동장에서 열려 고등부 준준결승전에서 漢陽工은 汶山高를 15-3으로、鎭海高는 東都工을 12-0으로 각각물리치고 준결승에 진출、결승진출권을 다투게 되었다.

◇제2일전적
▲고등부준준결승
한양공고 15(9-0 6-3)3 문산고교
진해고교 12(8-0 4-0)0 동도공고

孫昌烈·廉世雲 선두
快男오픈골프 159명 참가



상금이 6백만원이 걸려있는 제5회 快男오픈골프 선수권대회가 10일 로얄컨트리서 159명(남자프로58、여자프로9、지망생18、아마74)이 참가한가운데 개막、4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첫날경기(18홀)에서 廉世雲(신세계)과 孫昌烈(뉴코리아)이 나란히 1언더파 71타로 남자 프로부에서 공동선두에 나섰고 3위는 파를레이선 72타를 한 韓長相、趙岩吉(산성)、朴政雄(로얄)、孫興洙、崔上鎬(이상 반포)、崔允一(한양)、尹昌學(태평양)등 7명이 차지했다.

여자프로부에선 韓明賢(안양)이 78타로 단독선두에 나섰고 2위는 나란히 80타를친 具玉姬(한양)와 李貴男(부산) 2명이 마크하고있다.

6명이 출전한 여자상비에선 李和順(강남)이 82타로 1위、鄭吉子(한양)가 83타로 2위、崔明利(산성)가 85타로 3위를 달리고 있다.

◇첫날성적
▲남자프로=①廉世雲(신세계)、孫昌烈(뉴코리아)71 ③韓長相(로얄)、趙岩吉(산성)、崔上鎬(한양)、朴政雄(반포)、孫興洙、崔允一(경)72

世界J大會참가 여자排球代表팀
9월에 出國

대한배구협회는 10월의 제2회 멕시코세계주니어 선수권에 참가한 여자대표팀을 9월중순에 조기출국시켜 美國에서 전지훈련을가진다음 바로 세계대회에 출전시키기로 10일 결정했다.

협회의 이같은결정은 美國스포츠평의회가 우리여자배구주니어팀을 9월16일부터 30일까지 초청했기때문에 취해진 것인데 주니어팀은 네브래스카·시카고등 중서부지역을 순회하며 세계정상급인 美國대표등과 모두 11차례의 친선경기를 가질계획이다.

구 인

유경험자 지렁이 잡이 구함
5명에 한하여 승용차로 모심.
☎ 881-1962: 221-7500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531-0474

지렁이잡이 원함(유경험자) :
힌치와 웨스톤지역, 최고가격
☎ : 243-7736 미스터 리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 일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지불.
우수한 이익. 600 SPEEDROCK DR. DOWNSVIEW
☎ 630-7777 LOUIS

재봉사 구함(LADIES' SPORTSWEAR)
번봉, 오바로꾸, 단, 풀타임, 파타임 or PIECE WORK
292 PARLIAMENT ST. AT DUNDAS ☎ : 362-2300

재봉사 구함 (남·여)
•약간명 •유경험자 •좋은 대우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니저구함 :
$10,000보증금 요함
☎ : 745-1255

스토아 매니저 구함
$15,000. 보증금 요함. 수입 $3,000 개런티
☎ : 635-9585

스토아 매니저 구함 :
신원이 확실하고 보증인요. 대우2500불 이상
몬트리올 지역임 ☎ 514-932-7775 미스타 조

GENERAL FACTORY HELPER NEEDED
딕씨×401지역 미시사가
공장에서 일할 분 구합니다.
☎ : 625-1433

입주하셔서 애기 봐 주실분 구합니다 :
미세스 하
☎ 665-4835

20세 전후한 남녀
풀타임 캐쉬어 구함.
☎ 742-0800

웨이트레스 구함 :
☎ : 536-0290
한 국 관

재봉사 구함 :
KEELE & LAWENCE 주간및 야간
☎ 243-3330

버라이어티 스토아에서 일할
경험있는 남자헬퍼 구함
☎ 532-6160

스토아 여자 캐쉬어 구함
(토, 일요일, 12~8시까지)
☎ : 921-0624

매매및 양도

아이스크림 가게 :
적은 자금으로
2700 KIPLING NORTH PLAZA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ASKING $20,000+스탁
☎ : 844-2922 392 KEER ST., OAKVILLE

FISH & CHIPS스토아매매 : 다운타운내에 좋은위치
리스5년, 렌트 $700. 오전10~7 : 30(월~금)
ASKING $45000 ☎ : 366 1332

그로서리 스토아및 빌딩 팝니다 : 이층 벽돌 건물이며
장래성이 많고 TUCK SHOP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음.
☎ : 781-7080 458 CALEDONIA RD.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3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주매상 $4500이상, 리스3년+5년 옵션
☎ 769 5956 3261 DUNDAS W.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6200~$6500이상, 렌트(스토아+2베드룸+지하실)
+로타리 MACHINE, $590, 리스5년 내방요함 3884 BLOOR W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4800+로타리MACHINE, 스탁 불게지 가능함
3240 EGLINTON E. (MARKAHAM)

프렌차이즈 벡커스토아 매매 :
1169 WOODBINE AVE.
☎ : 423-7939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가장 적당한 Offer를 주시는 분에게 팔고자 함.
☎ : 465-4003

성업중인 햄버거 샾 급매
다운다운지역
☎ : 535-2804

①번잡한 다운타운 지역에 자리잡은 버라이어티스
주매상 $3,500, ASKING $29,000
②하드웨어스토아(DANEFORTH AVE.)
주매상 $2,500, ASKING $39,000+스탁
CALL : TRUSTWELL REALTY REALTOR
☎ : 361-1226

좋은 비즈네스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1. $30,000보증, buy-back계약.
지렁이를 사육함으로써 년 $25,000. 순수익 part-time)을 얻읍니다. 당신의 지하실이나 차고를 이용할 수 있읍니다. 투자금액은 $3890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821-2151로 전화 바랍니다.
DELITE ECOLOGICAL SYSTEMS
6533 MISS. RD. L5N 1A6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각종 꽃종류, 조화, Plants취급. *꽃꽂이,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어디든지 배달가능합니다.
☎ : 769-0609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순피아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크리스티미용실 (크리스티 서브웨이 건너편)
남녀 노소 커트, 셋트, 파마 전문
727 Bloor St. W. (B) 533-2569, (R) 967-1518 미세스 박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80(R) 번 달 원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MINIT TUNE : 주정부 지정 차량검사장
①TUNE UP, ②BRAKE검사무료, ③각종차수리일체
☎ : 782-6311 이 태 경(793 Spadina Rd. at Eglinton)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 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HILL TOP AUTOBODY
•페인팅 전문 •완전한 바디웍
13367 YONGE ST. (Up Yonge North Richmond hill)
☎ : 773-7777, 773-4362

식품점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자동차, 집유리 설치, Repair합니다.
보험청구등 자동차 실내장치도 합니다.
MOON'S AUTO TRIM & GLASS LTD.
☎ 633-0656(B), 493-7185(R)
정 해 문(핀치×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현 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MR. 심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 0200

SOO, PIANO SERVICE 222-4662
SIMSON'S의 써비스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회사.
액숀조정, 건반, 캐비넷칠,조율 중고매매. 김 수 용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에어콘·히팅·냉장고

각종냉장고 (가정용및 상업용)
ELECTRIC STOVE수리전문
☎ : 466-4304, 469-3341 박 기 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식 당

KOREA HOUSE
*즉석불고기 전문
666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 TEL. 536-8666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한방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집·방세·하숙

1 베드룸 아파트먼트 FOR렌트
킬과 던다스 지역
☎ : 743-4787, 960-6263 미스타 최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MOBILE DR
TOR. M4A 1H9
☎: 752-7771

회 장: 이 형 인
부 회 장: 임 철 원
〃: 김 명 정
이 사 장: 김 태 진
부이사장: 전 윤 식

법률코너(1)

가게 매매 계약

—변호사 강 찬 영—

○강찬영 씨

요사이 가게를 사고 팔 때 복덕방을 거치지않고 당사자들이 직접거래하는 것을 종종 본다. 이같은 매매계약을 맺을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들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매도자·매수자 확인

먼저 누가 누구로부터 사업체를 사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겠다. 캐나다 법상으로 주식회사는 한 개인과 동등한 존재로 취급을 받고있고, 또 많은 사업체들이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것을 모르고 그 주식회사의 주주와 맺은 계약은 주식회사를 상대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업체의 법적 주인은 주식회사이지 주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회사 전체를 매매하는 일은 사무상으로 복잡하며 많은경우 세금면으로도 도움이 되지않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사업체의 주인인 경우 사업체만 구입하는 것이 간단하고 좋다.

2. 가 격

시간의 낭비를 막기위해 계약서를 쓰기전에 어느정도 가격에 대한 쌍방의 합의를 보는것이 좋다.

3. 계약금

예약금은 매도자에게 직접주거나 매도자의 변호사에게 지불할수가 있는데 매수자의 입장으로 볼 때 매도자의 변호사에게 주는편이 훨씬 안전하다. 간혹 매도자는 돈을 다 써버렸는데 계약이 무효화되어 돈을 돌려주어야 할 경우, 다른 채무가 많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매도자의 입장으로는 되도록 많은 예약금을 받기 원한다. 이것은 그만큼 매매가 이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매수자를 묶어놓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매수자는 적은 예약금을 지불하면 그 예약금을 포기하고라도 더 좋은 다른 업체를 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하겠다.

4. 인벤토리(재고정리)

대개 스타온 쌍방의 합의하에 선택된 인벤토리 에이전트를 통해 확인하는것이 보통이며 비용도 반씩 부담한다. 계약서에는 파손된 물건, 기간이 지난 물건등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매수자에게는 꼭 필요하다. 또한 할인율은 각 품목 종류마다 정하거나 모든 물건을 매도자가 구매한 원가로 한다는 등의 가격방침을 정해야 하겠다.

매수자는 또한 사업체에대한 임대계약서를 검토하여 가게내에 있는 물건들이 그 장소에서 팔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많은 경우 임대계약(리스)은 가게내에서 팔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매도자가 지금까지 팔아왔다거나 집주인이 묵인해 왔다는 사실등은 매수자의 입장으로는 믿을만한 사실이 못된다. 그같은 묵인은 매도자에 대한 묵인이면 묵인이지 새 매수자에게도묵인해준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집 주인이 서면으로 허락해 준다면 문제가 없겠다.

인벤토리는 대개 인수 바로 전날 저녁이나 인수하는날 아침에 하게 되는데 필자의 의견으로는 인수하는날 아침이 좋다고 본다. 간혹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하룻밤 사이에 어떤일이 있을지 서로가 의심하는 문제도 있으며,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인벤토리후 밤 사이에 화재 또는 도난등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5. 채틀모기지(Chattel Mortgage)

매수자들은 대개 스타전 채를 현찰로 지불하기 보다는 일부분을 채틀모기지로 잡는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가) 연 이자율

(나) 이자 상환횟수

이자 상환횟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매수자는 더 많은 이자를 물게된다. 대개 반년마다 이자상환(Calculated halfyearly, not in advance)을 하는것이 상례이나 간혹 매달 상환하는 채를 모기지도 있다.

(다) 담보기간(Te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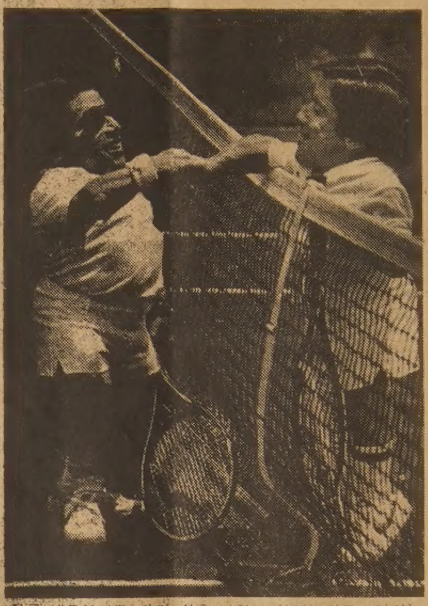
금액이 크면 클수록 매수자에게는 담보기간이 긴 것이 좋다. 물론 개인의 경제능력에 좌우되는 것이지만 제 삼자에게 가게를 양도할 경우 그 제 삼자가 자신만큼 경제능력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담보기간이 길면 제양도 하는데도 좋은 여건이 된다고 하겠다.

(라) 상각기간(Amortization Period)

많은 사람들이 상각기간을 담보기간인양 착각하는 경우를 보는데 상각기간은 대개 매수자가 매달 물어야하는 액수를 적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밖에 다른 중요성은 없다. 즉큰 금액을 담보로 빌렸을 때 짧은 담보기간안에 다 갚으려면 부담이 크게 되므로 담보기간보다 훨씬 긴 상각기간을 잡아 마치 상각기간내에 전 금액을 갚아야하는 것처럼 가정하면 매달 무는 금액을 적게하는 것이다.

(마) 「오픈」모기지

마지막으로 모기지가 오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오픈 모기지인 경우 채무자는 언제든지 얼마만큼의 원금을 지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어 좋다. 갑자기 큰 현찰을 가지게 될때 원금을 많이 물어버리면 그만큼 이자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계속〉



정구 네트보다도 키가 작은 난장이 형제(2피트10인치)인 존과 그레그 리이스가 12일 쌈 비치에서 열린 유명인사 자선 정구대회 결승에서 4대4로 비긴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브로드웨이로 돌아온 엘리자베스 테일러양이 뉴욕의 사르디 레스토랑에서 캐리주지사 부부와 포즈를 취했다. 캐리지사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정신보건에 대한 공로로 상을 수여했다고.

불공정 거래행위 란 무엇인가?

(Unfair Trade Practices)

우리는 가끔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갖게될 때가 있다. 무엇인가 석연치 못한 느낌을 갖는 경우, 몹시 당황하게 될 때도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법은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경우를 미리막아주고 있다. 이제 법으로 설정되어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무엇인가?를 개략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불공정 거래행위의 개념및 적용범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자유 경쟁이 스스로 조화된다는 이론은 현대 자본주의 사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는 독과점 대기업체로부터 중소기업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령을 제정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기업합동조사법(THe Combine Investigation Act)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법은 기본적으로 자유경쟁제도를 유지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그 중에 우리 회원들에게 직접 연관이 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내용을 알아본다.

1.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생산자나 도매업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구매자들을 가격특혜(Price Concession)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차별할 때에 이루어지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이 조항에 의하여 공급자는 서로 경쟁하고 있는 구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그 구매자들이 같은 상표, 같은 품질 그리고 같은 수량일 때 그러하며, 혹 구매자들 중에 새로운 점포를 열 때에는 예외인 경우도 있다.

2. 구매량에 따른 할인(Volume Quantity Discount)

공급자는 구매량의 과다를 근거로 가격을 선별할 수 있다. 그러나 구매량에 의한 할인제도(Schedule of Volume Discount)는 모든 구매자에게 알려야만 된다. 이 제도는 대 기업체가 여러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일괄 주문을 받아 각 지점에게 배달 시키는 방법(Drop Shipment)을 쓸 수도 있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공급자에게 적용되지만 만일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판명되면 공범행위로 간주될수도 있다.

3. 약탈가격(Predatory)

이것은 경쟁자를 제거 시키기 위해 어느 상품을 터무니 없는 싼 가격(Unreasonably Low Price)으로 싸게 팔아 그 결과로 경쟁자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디스카운트 스토어의 가격은 이 약탈 가격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는 스토어의 매네지먼트(운영관리)의 비용을 절감한 인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4. 판매촉진(Promotion Allowance)

환불(Rebate), 할인(Discount), 또는 가격 특혜 같은 판매 촉진을 위한 방법들을 말하는데 구매자들에게 같은 비율에 따라 제공치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공급자는 모든 구매자들에게 그 비율에 따라 판매 촉진 수당을 공정히 지급해야 한다.

5. 허위가격광고(Misleading Price Advertising)

이는 어느 상품의 판매가격을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쉬운 예로 특별 대매출(on Sale)을 하면서 조작한 시장가격을 제시하고 그 보다 낮은 가격을 보이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6. 소매가격통제(Retail Price Maintenance)

생산자나 도매상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공급자들이 소매상에게 판매하면서 그 상품의 가격을 지정하여 그 이상이나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최저의 가격을 강요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최고가격(Maximum Price)만을 선정하거나 위탁판매(Consignment)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민정착에 도움주는 〈한국일보—토론토〉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트루먼大 영어연구원장】

NOT THAT I KNOW OF.

시카고에서 위스콘신으로 필자가 주말여행을 하던때의 일이다. 한참을 하이웨이로 달리다가 잘못하여 엉뚱한 곳으로 접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기름까지 떨어져 가는판이라 주유소를 찾는데 마침 지나가는 차가 멈추어 주어서 「이 근처에 주유소가 있나요?」 Is there a gas station around? 이렇게 물어 보았더니 Not that I know of.라고 대답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는 얘기였다.

이 Not that I know of.는 미국인들이 역시 자주 쓰는 생활영어이다. 예컨대 「빌이군대에 있나요?」 Is Bill in the army? 「내가 아는 바로는 아니다」 라고 하고 싶은 경우는 Not that I know of. 「잭이 집에 있나요?」 Is Jack at home?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 결국은 밖에 나갔다는 뜻이다. 역시 Not that I know of.이다.

A: Are you going to Washington next month?
B: Not that I know of.
A: I heard your family was going on a vacation.
B: You must have misunderstood.
A: Yes, I guess so.
B: I'm not planning on a vacation until late summer.
A: 다음달에 워싱턴 가시나요?
B: 아닌데요.
A: 댁의 가족이 휴가로 거기에 가시는걸로 들었는데요.
B: 잘못 아셨겠죠.
A: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B: 전 늦은 여름까지는 휴가 계획이 없읍니다.

※know of: ~을 알고(듣고)있다. 예: This is the best English book I know of.
must have misunderstood: 오해임에 틀림없다.
guess: 추측 하다. I guess so: 그렇게 추측한다.

협회 고문변호사 분망 회원들의 의뢰 건수증가

협회 고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회원들의 상담의뢰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협회는 고문 변호사를 선정하여 협약을 맺고, 회원들의 권익보장과 애로 사항의 신속한 처리 그리고 불편을 덜기 위하여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도록 했다. 그간 회원들의 불평과 애로점이 있어 그 시정을 촉구해 왔지만 점차 회원들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은 그 반영으로 보아진다. 혹시 종전의 부당한 처우나, 과도한 비용의 청구, 성사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한 지불요구(예: 상점매매의 오퍼작성시 쌍방의 싸인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 등…)같은, 또는 불확실한 변호비의 지불을 했을 경우, 자세한 경위와 영수증을 함께 협회로 보내주면 다시 그 시정을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협회 임원은 밝히고 있다.

고문 변호사와의 굳은 유대감을 맺기 위하여 서슴없는 의견과 조언을 구한다.

"존슨 넛"회사 리베이트 보내오다

지난 5월11일자 존슨 넛(Johnson Nut & Confection)사의 세일스 매네저 릭 앤드류스(Rick Andrews)씨 싸인의 리베이트 수표가 협회로 우송되어 왔다. 이 수표는 1980년도 메트로토론토 전 지역 69개 회원 점포에서 매상된 총 매상액의 1.2%에 해당되는 액수로 협회와 맺은 상거래상의 코밋숀 베이스의 지원금이다.

이 회사는 다양한 넛 종류들을 공급하고, 이 상품을 취급하는 회원들에게 30%라는 파격적인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있다.

앤드류스씨는 협회와 회원들의 끊임없는 협조에 심심한 감사를 표시해 왔으며, 아울러 계속 지원을 요청해 왔다.

친선골프대회 뒷이야기

지난 5월29일에 열렸던 임원, 이사 친선 골프대회는 기보한 바 있었지만 그 날 대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각자회비로 그린·피와 디너로 $30씩 부담했었다. 이 모임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유익한 기회였다고하면서 수시로 이런 기회를 가지면 협회 발전과 운영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Silverwood밀크파업 200여 회원 우유판매 마비

지난 5월31일 자정부터 실버우드 밀크회사의 파업은 협회 산하 회원 200여 스토어의 우유판매 기능을 마비시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

협회는 이에 대처하여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나 파업이 어느 때 까지 계속될런지 알 수 없어 장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회원들은 슬기와 인내로 이 위기를 극복해 주기를 당부한다.

일부 회원들은 재빨리 공급사를 도미니온 낙농회사의 Seatest로 바꾸려는 문의 전화가 빗발쳐 협회 사무실에서 세일스·매니저 Rick Robertson(전화 963-6417)로 연락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하루전 주문 염가 점심 제공

분주하게 가게를 돌보느라고 점심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도시락을 $3.50의 저렴한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교포가 있어 소개하니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

(889-5570)

각종 썬 그라스

•대폭적인 할인

7년간 봉사해온 썬그라스계의 권위공급회사
CAMELOT IMPORTS LTD.
250 Wildcat Rd., Downsview, Ont.
전화 663-2972 Mr. Smith

회원 문예작품 공모

본 협회에서는 1981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회원여러분의 문예작품을 모집하여 우수작을 시상코자 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심을 바랍니다.

—아 래—

응모마감: 1981년 7월30일
작 품: 수기, 시, 수필, 콩트등 원고제한 없음.
심사위원: 추후 발표함
시 상: 1등 상패및 부상($500현금)
2〃 〃 ($200현금)
3〃 〃 ($100현금)
원고제출처: O.K.B.A.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원고 반환없음)

온타리오 한인실업인 협회

협회고문 변호사

온타리오주 상법 권위자

CATZMAN & WAHL
BARRISTER & SOLICITORS
133 RICHMOND ST. W.
(University와 Osgoode)
자제한 문의: 362-1623
MISS 박이나
MR. LEVINE을 찾으세요.